

“정치적 격랑 속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주권 회복을”

제4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 열려

제5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됐다. 대한민국의 위기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의 이 기도회는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통령 선거 직전 주간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역시 첫 메시지는 이 기도회를 이끌고 있는 이태희 목사(그안에진리교회)가 전했다. 이牧사는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마태복음 21: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근대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는 로마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오셨기 때문’이라며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게 되었고,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면서 근대사, 근대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렇게 복음이 녹여진 근대사가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지중해로,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에는 그 복음이 대동강을 통해,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젓줄인 한강으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결과, 반만년 동안 우상들의 젖을 먹고 살아가던 이 민족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녹여진 젖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한 마디로, 예수의 탄생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된 것”이라고 했다.

이 목사는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그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라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어떤 일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King of Kings)으로 오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소동이 일어난 곳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아니라, 해롯 왕과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던 ‘왕궁’이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대한민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정치적 격랑 속에서, 오직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 분에게만 충성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정치적인 본질”이라며 “교회와 정치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이태희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염보연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주최 측 제공

의 과도한 분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결합’ 모두,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의 정치체제라는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는, 물이 바다 덮을 같이 여호와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짐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왕권 아래 하나가 되어서

는 정치적인 통합, 그와 같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이 바로 선교”라고도 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이 땅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주시하며, 항상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감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세속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

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시요, 열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활동,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만 부르짖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이날 두 번째 메시지는 염보연 목사(원한사랑교회)가 전했다. ‘위기의 시대를 돌파하는 믿음’(역대하 34:1-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염 목사는 “역사적으로 진정한 영적 지도자는, 가장 아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곤 했다”며 설교 본문의 ‘요시아 왕’을 소개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기록된 요시아 왕에 대해 “좌우를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직진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이 ‘정직’은 성경이 평가하는 믿음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찾으시는 인물의 중요한 자질이기도 하다”고 했다.

염 목사는 “요시아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방향 감각만 좋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실제로 달려갔다는 뜻이다. 시대가 아무리 무너지고 악해도, 믿음의 사람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며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복음의 길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교회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요시아는 거룩과 정결이라는 본질적 사명을 회복했다. 그는 우상들을 철저히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일을 단행한다. 이는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니라, 영적인 결단이었다”며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우상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단지 외형적인 불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더 두려워하는 것이 모두 우상”이라고 했다.

염 목사는 “특히 이 시대는 진화론, 인본주의, 뉴에이지, 공산주의 등 다양한 미혹의 메시지들로 가득하다. 이 모든 혼합주의와 미혹의 영들을 철저히 분별하고 제거하는 일은, 오늘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사명”이라고 했다.

그는 “요시아는 또한 여호와와의 성전을 보수했다. 이는 상징적인 행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일야말로 참된 개혁의 본질이기 때문”이라며 “신앙은 중도나 중립을 추구하는 회색지대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이다. 요시아는 자신을 ‘하나님 쪽으로’ 치우치게 했다. 중도를 자처하지 않고, 말씀의 편에 서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안정된 길”이라고 했다.

염 목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위기 가운데 있다. 거짓과 왜곡, 불의와 무법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방향을 분명히 하고, 힘을 내어 걸어 가며,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다시 세워야 한다”며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일터와 민족 가운데, 우상은 무너져야 하고, 성소는 재건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요시아처럼, 정직하게 행하고, 방향을 바로잡아 하나님께로 직진하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돌파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한기총,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입장’ 발표

“교회 관련 정책 등엔 적극적 의사 개진도 필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고경환 목사〈사진〉, 이하 한기총)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 입장문에서 “투표는 헌법에서 보장한 참정권으로 국민에게 주어진 중요한 권리 중 하나”라며 “투표를 통해 정치활동에 작간적적으로 참여할 뿐 아니라 개인의 의사

를 국가 정책과 방향성에 반영시킬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선거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이며, 선거를 통해 후보자 중 누가 더 적임자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며 “후보나 정당 그리고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선거를 준비해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서로를 향한 비방과 네거티브로 유권자를 자극하는 것은 과

거에 얽매이는 것일 뿐, 미래를 위한다면 정책 선거로 가야 한다”고 했다.

또 “각 후보의 정책과 공약 실현 가능성을 비교하며 결정해야 하겠지만, 교회와 관련된 정책 등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의사 개진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고, 특히 선거 때에는 반대하더라도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말 바꾸기 행태를 보였던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더욱 분명한 입장 표명은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을 향해 “유권

자로서 국가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자”며 “올바른 선택을 위해 후보자, 정당 등의 정책과 공약을 비교하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를 선택하자”고 했다.

이어 후보자와 정당을 향해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나 비방, 흑색선전으로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지 말고 바르게 경쟁하자”며 “정책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여 유권자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한기총은 이 입장문에서 구체적 현안과 관련한 입장에서 아울러 피력했다. 우선

“동성애, 동성혼을 반대하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이와 관련한 입법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으며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모든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세계로교회 순원보 목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교회 탄압을 규탄한다. 교회와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공권력 남용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성경적 가치에 따라 설립된 종교사학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을 반대한다”고 했고 “정치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 승자독식 구조를 타파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변화를 공

약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표(票)만을 생각하고 말 바꾸기 행태로 국민과 기독교인을 우롱하는 진정성 없는 후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GCR “매년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 수 늘어” >> 7면

히즈쇼, ‘사랑하기 캠페인’ 실천키트 배포 >> 23면

액상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소재 전문기업 트윈위즈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연구단지 1길 16, 4층 ☎ 055-286-9004

※ 제품의 색상, 외관 및 특성 변화 없이 항균/항바이러스/항곰팡이 기능을 부여할 수 있는 소재

도로 / 라텍스



가전/가구 필름



기능성 페인트



라텍스 장갑



도어락/손잡이



차량용 필름/디스플레이



생활용 도로/코팅액

“한국 선교 140주년… 개혁신앙 영성 회복해야”

기독교학술원, ‘선교 140주년, 기독교의 의미’ 주제 영성학술포럼

기독교학술원(원장 김영한 박사)이 최근 서울 서초구 양재동누리교회 화평홀에서 ‘선교 140주년, 기독교의 의미’라는 주제로 제48회 영성학술포럼을 개최했다. 개회사를 전한 김영한 박사는 “한국개교회화는 기독교영성이 소진하고 있는 오늘날 포스트모던시대의 서구 신학을 향하여 개혁신앙적 영성을 새롭게 복원시켜야 할 시대적 사명에 직면하고 있다”며 “지식은 정보에 그칠 수 있으나 영성은 지식에 생기를 부여하고 우리의 삶에 활력을 준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부의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오늘날 그의 교회와 신자들 가운데 재현하고 생동화하신다. 140년 역사의 한국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 능력 가운데서 새롭게 된다. 한국개교회화는 주관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성령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발표회에서는 △박명수 교수(서울신대 명예교수)가 ‘종교 토양’ △이관표 교수(한세대)가 ‘신학적 토양’ △곽혜원 교수(경기대)가 ‘문명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로버트 윌슨 슈펠트 중심의 개항기 대미외교와 기독교선교에 대해 박명수 교수는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부터 1880년 타이건도르가의 귀

향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슈펠트(Robert Wilson Shufeldt, 1822~1895 미국 해군 제독·외교관)의 활동을 통해 조미조약의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슈펠트는 미국의 외교활동을 문명사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며 “둘째로 슈펠트의 대 조선 활동에 있어서 1867년 와츠펜트호를 타고 조선에 왔던 사건과 1880년 조선을 개항시키기 위해서 조선에서 활동한 내용을 서로 연관지어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셋째로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무력 사용의 문제로 중국의 이홍장을 동원해서 무력이 아닌 설득으로 조미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넷째로 나가사키에서 슈펠트의 활동이 결국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다섯째로 슈펠트는 종교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박 교수는 “조선은 중국 일본 러시아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었고, 결국 조선은 이런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과 관계를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고종은 바로 이것을 미국에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은 슈펠트만큼 조선에 관심이 없었다. 결국 미국에 대한 사랑은 고종의 일방적 사랑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했다. ◆“한국 기독교, 약자·자기 비움·참된 휴머니즘의 윤리 회복해야” 이관표 교수는 “종교사학적 유대교 기



기독교학술원 제48회 영성학술포럼 참석자 기념 사진. ©기독교학술원



(왼쪽부터) 김운태 교수, 박명수 교수, 김영한 박사, 이관표 교수, 곽혜원 교수, 이은선 교수. ©기독교학술원

독교 비판으로부터 약자의 윤리를 발견했고, 니체의 기독교 비판을 통해 기독교의 자기 비움의 윤리를 발견했고,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독교와 휴머니즘 비판을 다루면서 거기로부터 기독교의 참된 휴머니즘 논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선교 1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기독교는 여전히 위기다. 그러나 이 기독교

교가 신학적 의미 세 가지 즉 약자의 윤리, 자기 비움의 윤리 그리고 참된 휴머니즘을 잊지 않고 지켜나간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 사회 안에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면 한국기독교는 그 교세와 상관없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존재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 어느 때보다 약자의 윤리, 자기 비움의 윤리 그리고 참된 휴머니즘이 필요한 이 한국 사회는 한국 기독교에게 진정한 회생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교회,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 회복과 직제·사역 참여 보장해야” 곽혜원 교수는 “한국교회의 성장은 여성들의 희생과 헌신 덕분이었다”며 “조직화가 진행되면서 여성은 점차 교회의 중심에서 밀려나, 수동적 역할에 머무르게 되었다”고 했다. 곽 교수는 “한국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권리와 위상이 비약적으로 진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유교적 남존여비 사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양성평등 문제는 한국 교회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했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인 중 60~70%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핵심 결정 구조에서 여성은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다수의 교단에서 여성의 목사 안수나 장로 임직은 제한적이며, 여성 사역자들은 보조적인 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곽 교수는 “이러한 구조적 차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려는 여성들의 헌신을 꺾고 있다”며 “지적이고 영적으로 준비된 여성들이 사역의 기회를 얻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예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꾸짖고, 복음 사역에 있어 남성과 동등하게 여성을 대우하셨다”며 “한국교회 역시 여성의 인간적 존엄성을 회복하고, 직제와 사역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곽 교수는 “오늘날 일부 젠더 페미니즘 세력이 교회 안의 여성 차별을 비판하며 여성 신도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여성 스스로 자신

의 역할과 권리를 축소하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있는 데 있다”며 교회가 구조적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곽 교수는 “여성 인권 회복은 남성과의 동등함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교회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여성들이 소신 있게 사역에 참여할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제2의 종교개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앞서 개회예배에서 ‘교회가 살고 죽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김운태 교수(前 백석대 기독교전문대학원장)는 “세계 교회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져 왔음을 볼 수 있다”며 “하나님의 촛대는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선택의 목적에 불순종하면 옮겨진다. 이스라엘에서 이방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미국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아시아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으로 하나님의 촛대는 옮겨져 왔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도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순종하는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지만, 불순종하는 교회는 몰락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곧 선택을 받은 교회이다.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어느 교회도 이처럼 선택의 축복을 받은 교회를 찾기 어려울 만큼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선택의 축복을 누려왔다”며 “이제 이 선택을 계속해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유지하든지 자만에 빠져 침체하든지, 한국교회는 선택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FAOBMB 2025’ 국제학술대회 개최한다

세계 생명과학 석학들 집결…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

세계 30여 개국 생명과학 석학들이 참여하는 ‘제31차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분자생물학 국제학술대회(FAOBMB 2025)’가 오는 2025년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생화학분자생물학회(회장 강봉균)와 아시아·오세아니아 생화학분자생물학 연맹(FAOBMB, 회장 김준이)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생명과학, 혁신의 물결이 밀려오다(Revolution in Biomedical Sciences: RIBS)’를 주제로 진행한다. FAOBMB 2025에는 생명과학, 의학, 바이오산업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연구자 약 4,000여 명이 참석해 최신 연구 성과와 기술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대회는 규모와 수준 면에서 국내 최대급 생명과학 행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2013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인 스탠포드대 토마스 슈트호프(Thomas C. Südhof) 교수(사진)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그는 신경세포 간 소통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밝혀내며 난치성 뇌질환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해왔다. 서울대 김빛내리 석좌교수도 ‘RNA 안정성 조절: 바이러스와 RNA 치료제에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외에도 하버드대 마리아 헤이거스, 데이비드 류 교수, 교토대 가츠토시 모리 교수 등 세계적 석학들이 신경과학, 유전자 편집, 미토콘드리아 대사, 단백질 구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5개의 기조강연을 포함해 총 20개 분야의 심포지엄이 마련되며, 유럽생화학회연맹(FEBS) 강연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주제는 바이러스학,



암세포 사멸, CRISPR 유전자 가위, 신약 개발, 면역학, 마이크로바이옴 등이다. 산업 전시회와 함께 젊은 과학자 프로그램(Young Scientist Program), 국제공동 심포지엄(한·호주, 한·중국, 한·일본, 한·필리핀 등), 10개 이상의 위성 심포지엄도 함께 진행된다. 젊은 연구자들과 글로벌 과학자들 간의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기대를 모은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위원장 김준 교수(한동대 석좌교수·고려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김아람 한동대 교수 등 200여 명의 국내 과학자와 20여 개국의 FAOBMB 임원진으로 구성되었다. 김준 조직위원장은 “이번 국제 학술대회를 통해 한국의 생명과학 연구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생명과학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석학들과 함께 생명과학 혁신의 물결을 만들어 가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사랑의전화복지재단, ‘아워 히어로즈’ 민간 협력 프로젝트 본격 가동

고령의 6·25 참전유공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민간과 공공의 손을 맞잡고 시작된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이사장 심정은)과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청장 전종호)은 최근 참전유공자 생계지원을 위한 ‘아워 히어로즈(Our Heroes)’ 프로젝트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의 보훈제도로는 충분히 닿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민간이 손을 내민 첫걸음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생존 참전유공자들에게 정기적인 생계비 지원뿐 아니라, 정서적 안정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는 단발성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지향하고 있다. 평균 연령이 90세를 넘어선 6·25 참전유공자들은 고령, 질병, 경제적 어려움,

고독 등 다양한 복합적인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아워 히어로즈: We Remember’는 단순히 과거의 영웅으로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이들이 지금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이웃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둔다. 이 프로젝트는 그날의 희생을 오늘의 돌봄으로 연결하려는 민간 보훈의 새로운 시도이기도 하다. 심정은 이사장은 “참전유공자의 오늘을 지키는 일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이번 협약이 민간 보훈의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한다”며, “모두가 보훈의 울타리 안에서 소외되지



협약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 ©사랑의복지재단

않도록 민간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사랑의전화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독거노인, 해외 아동 등 다양한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 복지사업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노형구 기자



당신 곁에서 새 삶 바라봅니다

사회와 환경의 소중함을 새삼스럽게 다시 바라봅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지속가능해지는 새 삶이 시작되길 바라봅니다
늘 당신 곁에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새 삶을 만들어갑니다



감리회 본부, 서울 광화문에서 양주시 일영으로 이전



감리교가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 양주시 일영으로 본부를 공식 이전하고 최근 감사예배를 드렸다. ©기감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 목사, 이하 기감)가 서울 광화문에서 경기도 양주시 일영으로 본부를 공식 이전하고, 최근 새로운 터전에서 감사예배를 드리며 본격적인 '일영 시대'의 막을 열었다. 이날 예배는 본부 이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감리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장에는 서울남연회 유병용 감독을 비롯해 중부연회 황규진 감독, 중앙연회 김종필 감독, 남부연회 이웅천 감독 등 교단 주요 인사들과 본부 임직원, 평신도 단체장 등 약 13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이전은 광화문 감리회관 내 분산돼 있던 여러 부서를 일영 연수원 건물로

통합한 것이다. 16층에 있던 본부 1실 4극과 도서출판 KMC를 포함해, 13층의 평신도 단체 사무실, 서울·서울남·중앙·서부연회 사무소, 속화연구원, 군선교회 등 대부분 부서가 이전을 완료했다. 현재 광화문 회관에는 회관관리부, KMC 서점, 여선교회전국연합회, 청년회전국연합회, GBGM 사무실만 일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예배는 문영환 총무(사무국)의 사회로 시작돼 박재혁 장로(남선교회전국연합회 회장)의 기도와 함께 진행됐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오랜 시간 함께했던 광화문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자리에서 시작하는 본부 임직원들의 수고에 깊

이 감사드립니다"며 "'화목과 하나 됨의 맛'이라는 주제 아래 회생과 연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루자"고 설교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본부 이전에 기여한 이안수 장로(지원본부장)에게 공로패가, 공사 시공을 맡은 김석기 대표(우성인테리어)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예배는 이철 전 감독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이후 본부 야외 마당에서 테이프 커팅 및 기념촬영, 다과회와 축하 케이크 커팅 순으로 이어졌다. 감리회는 민원인의 접근 편의를 고려해 서울 지하철 3호선 지축역에서 본부까지 하루 두 차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본부 전화번호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감독회장 김정석 목사는 이번 이전이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감리회가 재정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재건축을 통해 광화문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감리회는 광화문 본부 건물의 임대 수익(연 25억 원 이상)을 통해 교단 재정 안정화와 은급재단의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본부를 일시적으로 일영으로 옮기고, 향후 서울로 재건축 후 복귀한다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감리회는 이번 이전을 '성장과 쇠신의 전환점'으로 삼아 교단 부흥을 위한 새로운 발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도산 안창호가 창립한 흥사단, 창립 제112주년 기념식 성료

도산 안창호가 창립했으며 독립운동에 뿌리를 둔 흥사단(이사장 직무대행 조현주)은 최근 대학로 흥사단 본부에서 '흥사단 창립 제112주년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 흥사단 조현주 이사장 직무대행은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도산이 강조한 진정한 주인 정신이며, 참다운 주인 정신의 실천으로 사회에 애기애타의 마음을 퍼트리지자"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시민의 철학으로 민족 평등, 정치 평등, 사회 평등, 교육 평등의 행복한 사회를 위해 흥사단이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 원로단우 추대식, 창립 기념 포상 수여식, '제112차 흥사단 대회(상해대회)' 소개 등이 진행됐다. 모범 원로단우에는 1965년에 흥사단 단우로 입단해 60년 이상을 흥사단 운동과 발전

에 헌신한 최동수, 이윤배 단우를 추대했다. 창립 기념 포상 수여식에서는 흥사단 시민운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온 단우와 청소년 지도자들에게 이사장 표창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장 표창 등을 수여했다. 이어 흥사단은 글로벌 흥사단 원년의 의미를 담아 상해지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상해대회에 대한 소개를 국내지부-미주위원회-상해지부의 단우들과 공유했다. 상해대회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도산 안창호와 독립운동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적 시민단체로 도약하자는 의미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다. 흥사단 상해지부는 도산 안창호의 독립운동 전진기지로, 1920년 상해에서 설립한 흥사단 원동위원부의 후신이다.

흥사단 관계자에 따르면, 도산 안창호 선생은 통합임시정부의 주춧돌을 놓은 지도자였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은 34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범동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복 80주년과 임시정부가 수립된 상해라는 두 요소가 결합한 역사적 무대 위에서 흥사단이 10월에 개최하는 상해대회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 확고히 하고 흥사단이 추구하는 평화와 세계시민 정신을 확산하는 공공외교의 장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흥사단 이명필 상해지부장은 "흥사단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상해대회에 단우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며, 함께 힘을 모아 더 나은 미래와 흥사단 운동을 이뤄가자"고 했다. 한편, 올해 창립 112주년을 맞는 흥사단은 한국의 근현대사를 가로지르는 시

민단체다.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고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흥사단은 앞으로도 풀뿌리 운동을 꾸준히 전개하며 시대의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민 누구나 회원 가입과 정기 후원을 통해 흥사단 활동을 지원하고 동참할 수 있다. 한편, 흥사단(興士團, Young Korean Academy)은 1913년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을 위해 창립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흥사단

한 민족운동 단체로, 해방 전에는 독립운동에 헌신했고, 해방 후에는 민족부흥운동, 인제양성, 민주화에 힘써왔다. 현재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뿌리 운동,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운동, 민족통일 운동, 청소년 활동 진흥 등을 비롯해 지역 사회 시민운동을 꾸준히 펼쳐고 있다. 노형구 기자

명동에서 예배·세미나 등 각종 모임을… 교회 위한 무료 공간

한교본, 무료 나눔 공간
'명동 아고라' 개소



무료 나눔 공간인 '명동 아고라' ©한교본

한국교회살리기운동본부(본부장 김종구 장로, 이하 한교본)가 최근 서울 명동에 무료 나눔 공간인 '명동 아고라'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이용 신청을 받고 있다. 120여 명이 한 번에 들어갈 수 있는 '명동 아고라'는 예배, 세미나, 회의 등 다양한 형태의 중대형 규모 모임이 가능하며, 음향시설과 대형 모니터 등이 구비되어 있다. 서울 지하철 명동역 7번 출구와 인접한 이곳은 서울 경기관 뿐 아니라, 서울역과도 가까워 지방에서 이용하기에도 매우 유용하다. 한교본 김종구 본부장은 "지나해 한교본이 한국교회를 섬기겠다는 취지로 설

립한 이후, 그간 다양한 사역을 도모해왔다. 그러던 중 한국교회 누구나 부담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번 사역을 추진케 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많은 기독교 교회와 단체들이 서울에서 갖가지 모임을 갖지만, 문제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열악한 단체들은 비용 문제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에게 유용한 공간으

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아고라'는 고대 그리스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던 장소를 뜻한다. '명동 아고라' 역시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세미나, 포럼, 예배, 회의 모든 종류의 모임이 가능하기에, 현 시점 교회와 단체들에 가장 필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명동 아고라'는 서울 중구 퇴계로 123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용을 원할 경우 김종구 본부장(010-3927-1442)에게 연락하면 된다. '명동 아고라'는 미리 예약만 하면 일회성 행사 뿐 아니라 정기 모임 역시 가능하다. 한편, 한교본은 교계 연합기관은 물론 시민NGO, 크리스천 기업과 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전 사회적 조직이다. 노형구 기자

월드휴먼브리지, 대형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

월드휴먼브리지(대표 김병삼)가 최근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영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한 긴급 모금 활동을 펼쳤다. 이번 모금에는 여의도침례교회, 안산제일교회, 용인제일교회, 좋은교회(감리회) 등 네 개 교회가 뜻을 모아 총 8,600만여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각 교회는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신속한 복구와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성금을 모금했다. 앞으로도 사회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후원금을 전달하면서 기념촬영에 임한 관계자들의 모습. ©월드휴먼브리지

13일에는 여의도침례교회 이관영 목사를 비롯한 교회 관계자들과 월드휴먼브리지 관계자들이 함께 산불 피해 지역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다. 이관영 목사는 현장에서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 전하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월드휴먼브리지는 안동, 의성, 영덕 등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을 순차적으로 찾아 복구 지원금과 함께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아울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 유가족들에

게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단체 관계자는 "긴급 모금 활동을 통해 모인 정성이 피해 주민들의 회복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대응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노형구 기자

B E Y O N D
ENTERTAINMENT
ELEVATING
EXCITEMENT

일상 속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곳, 워커힐 호텔앤리조트

WALKERHILL
HOTELS & RESORTS

워커힐의 다채로운 콘텐츠와 함께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해 보세요.

MEET NEW ART @ VISTA
비스타 워커힐의 야외 가든, SKYARD에서
최고의 뷰와 함께 세계적인 아티스트
JAYSON ATIENZA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ART PICNIC
워커힐의 아트 프로젝트 1탄,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예술과 함께하는 아트 피크닉을
즐거 보세요.

KakaoTalk

플러스친구

카카오 플러스 친구 WALKERHILL
워커힐의 카카오 플러스 친구가 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이벤트 소식을 제일 먼저 받아 보세요.

www.walkerhill.com 문의 1670-0005

남가주 교회 및 단체들 장학생 모집

◆ANC온누리 장학생 모집

2006년부터 시작된 ANC 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 장학회는 올해로 20년째를 맞는다. ANC 장학회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각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나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학업을 장려하고 장래의 크리스찬 지도자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ANC 장학금 신청은 <http://ancsfus> 온라인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마감은 6월 15일(오후 11시 59분 PST)이다.

지원자는 장학금을 수령할 수 있는 미국주소와 미국 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 학생이어야 하고, 목회자 자녀 또는 선교사 자녀에게는 가산점이 있다.

지원서는 ANCSFUS 웹사이트에서 구급 폼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성적 증명서추천서지도교수 및/또는 목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대한 개인 간증(약 500단어) 등을 모두 PDF 파일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수상 발표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있으며, 수여식은 8월.

지원 자격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고등학생(정규 학생, 대학원 과정에 입학한 학생(정규 학생) 문의 818 834 7000

◆제26기 충현장학생 모집

충현선교교회(국윤권 목사) 장학부에서 2025-2026년 장학생을 모집한다.

1. 일반 장학금: 기독교 신앙이 돈독하며 교회와 사회에 공헌할 유능한 인재 양성, 2. 박태웅 장로 장학금: 초급 대학 재학 이상,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 육성, 3. 정상우 목사 장학금: 선교사 자녀들을 크리스천 글로벌 리더로 육성

지원 자격 ▲ 세례 받은 자로서 교회 출석자 ▲ 정규 4년제 대학 및 신학교의 재학생이나 입학이 허가된 자(박태웅장로 장학금: 2 년제 초급대학 재학생 포함) ▲성적이 우수하고 재정 도움이 필요한 자이다.

제출서류: ▲ 프로필 사진(흰색 배경의 최신 사진) ▲ 학업 성적 증명서 사본(PDF) ▲2023년 세금 보고서 사본(PDF) ▲ 목사/장로 추천서(PDF) ▲두 개의 에세이: (1) 신앙 간증: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간증. (2) 비전 선언문: 그리스도와 가 삶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계획과 비전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마감: 2025년 5월 31일(토)
장학금 수여 예정일: 2025년 7월 27일(주일)
문의: scholarship@choonghyun.org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 장학생 모집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임학춘 목사) 장학위원회가 오렌지 카운티 거주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지원자 또는 부모가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올해 가을 학기 입학이 확정된 고교 졸업반이어야 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인당 \$2,000의 장학금이 수여된다. 신청서류 접수 기간은 6월 20일까지

이다. 신청은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다(lagunachurch.com/) **문의:** 949-380-7777 www.lagunakumc@gmail.com

◆선한청지기교회 장학생 모집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는 6월 1일까지 2025년도 장학생을 모집한다. 대상은 12학년대학 진학 예상자, 대학생, 대학원생이며, 교회 웹사이트 (<https://gshch.org/>)를 통해 제출 서류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오테페(OTEFE) 재단 장학생 모집

오테페(OTEFE) 재단은 미국에 거주하는 우수 한인 또는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대상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대학(원) 재학생 또는 올해 입학 예정자이며 마감은 5월 23일이다.

이 장학금은 미국 시민권 여부와 관계없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한국계 미국인 학생, 재외동포 학생, 또는 한국 발전에 헌신하는 비한국계 학생이 교육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표이다. **문의:** 웹사이트(<https://otefe.org>) 참고.

◆PCB 은행 장학생 모집 5/30 마감

PCB 은행은 5월 30일(금) 오후 5시(태평양 표준시)까지 장학생을 모집한다. 금액은 학생 1인당 \$3,000이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부모 2023년 혹은 2024년 소득세 신고서
-추천서: 추천인이 직접 작성하여 pcbss@mypcbbank.com으로 이메일로 제출, 이메일 제목은 "장학생 [성함]"으로 하여 수신자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에세이: "지원자의 개인 상황; 대학에 대한 목표; 이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관한 에세이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는 다음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서가 취소된다.

1. 미국 거주자 또는 영주권자이며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2. 4년제 또는 2년제 대학에 입학하는 고등학생.
3. 4.0 기준 최소 비가중 누적 GPA 3.0을 받았거나 GED를 취득했어야 한다.
4. 금융 지식 교육과 장학금 수여식에 참석해야 한다.

신청자는 다음 카운티 중 한 곳에 거주해야 하며 HUD 2024 소득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정적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 .

1. 캘리포니아 - LA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2. 뉴욕 - 퀸즈 카운티
3. 뉴저지 - 버겐 카운티
4. 텍사스 - 댈러스 카운티
5. 조지아 - 쿠틀 카운티

◆Daniel G Calugar Foundation Merit Scholarship

이 재단은 매 학년 가을 학기에 대학에 입학하는 뛰어난 신입생 10명에게 각각 1만 달러의 장학

금을 제공하는 학업 성취 우수 장학금을 제공하고 있다. 장학금은 대학 등록금으로 사용되며, 이 장학금 프로그램은 학생의 학업적 우수성, 동기, 진로 목표를 기준으로 선발한다.

이 지원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 ▲ SAT 1500 점 이상 또는 ACT 34점 이상 (장학금 신청서와 함께 시험 점수 사본을 제출해야 함) 이어야 한다.

지원자는 ▲'목표, 목적, 그리고 지원자의 대학 경험이 그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195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은 45%였으며, 2007년에도 45%였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미국 연방 부채는 GDP 대비 120%였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 부채의 GDP 대비 비율과 2007년부터 이 비율이 증가할 추세는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비율과 지난 15년간의 추세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을 작성해 재단 이메일로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정보: <https://dancalugarfoundation.org/>

◆호프 장학금

뱅크오브호프는 은행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교육을 지원하는데 큰 자부심을 가지며, 호프장학재단을 통해 현재까지 수백만 달러를 장학금액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학생당 \$2,500 이 수여되며, 각 수상자는 하나의 상만 받을 수 있다. 접수마감은 2025년 6월 6일 오후 5시(동부시간 기준)이다.

신청은 뱅크 오브 호프 웹사이트(<https://www.bankofhope.com/ko/hope-scholarship>)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부모/보호자의 2024년 소득세 신고서, ▲ 추천서: 추천하는 분이 직접 작성해 hope_scholarship@bankofhope.com으로 바로 보내야 주셔야 한다. ▲학교에서 발행한 가장 최근의 비공식/공식 성적 증명서(PDF 파일로 스캔) , ▲ 에세이(PDF 형식)를 제출해야 한다.

에세이는 아래 주제 중의 하나를 선택해 약 500 단어 분량으로 작성해 신청서와 함께 PDF 형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주제 1: 귀하가 경험한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인생에서 견디기 어려웠던 사건을 설명하십시오. 이를 어떻게 극복 했습니까? 이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 했습니까?

주제 2: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인의 리더십과 영향력을 보여준 삶의 영역을 설명하는 짧은 에세이를 작성하십시오.

지원자는 다음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 합법적 거주자, 또는 Freely Associated States 시민권자

2025년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인가받은 2년제 칼리지나 4년제 대학교에 신입 등록할 학생

4.0 척도에서 최소 가중치가 없는 GPA가 3.0이상이거나 GED를 취득한 학생
재정 보조에 필요한 소득 증명 (자세한 내용은 Bank of Hope 장학금 소득 제한을 참조)

독립 애국자 묘지 보존 행사 열려

지난 5월 10일 오전 9시에 대한민국민회, 화랑청소년재단, 그리고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생신 목사)가 함께 Angelus Rosedale Cemetery에서 독립 애국자 묘지 방문 및 보존 행사를 가졌다.

남가주교회협의회 관계자는 "거의 아무도 찾지 않는 쓸쓸한 환경 속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의 묘지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과 안타까움을 느꼈다. 현재까지 확인된 독립운동가는 총 31분이며, 모두 나라를 위해 목숨과 삶을 바친 귀하신 분들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화랑청소년재단 소속 학생들이 앞으로 이 묘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비석을 닦고 관리하겠다는 결단을 했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다. 이 결심은 단순한 봉사가 아닌, 역사를 기억하고 계승하는 소중한 사명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애국 선열들의 정신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윤준 기자

2025 미주 고신 목회자 컨퍼런스 “오늘날 예배를 다시 생각한다”



미주 고신 목회자들을 위한 '고신 목회자 컨퍼런스 2025'가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워싱턴주 웨드빌레에 제일장로교회(담임 이민규 목사)에서 열린다.

재미고신 신학위원회(위원장 이일근 목사) 주최로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오늘날 예배를 다시 생각한다(Rethinking Worship Today)"라는 주제로 예배의 본질과 현대 교회 속 예배의 방향성을 깊이 있게 고찰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강사로는 이성호 교수(고려신학대학원)와 안

재경 목사(온생명교회) 나서 주제 강의와 Q&A 세션을 통해 오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예배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을 이끌 예정이다.

첫날에는 '삼위일체와 예배'를 주제로 한 주제 강의가 예정돼 있으며, 둘째 날에는 '예배의 역사'와 '예배당 건축', '예배의 풍경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셋째 날과 마지막날에는 '교회력과 예식', '직분론' 강의와 함께 소그룹 나눔이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의 및 숙박이 무료로 제공되며, 등록비는 \$50이다. 모든 강의 영상은 이후 재미고신 웹사이트(KOSINUSA.ORG)에 업로드 될 예정이다.

김민선 기자

연세대학교 개교 140주년 기념 미주 조찬기도회 성료

미주 복음방송 공개홀,

남가주 임마누엘교회 문두진 목사 설교, '예수님을 따르는 삶'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 ©주최 측 제공

2025년 5월 10일, 미주 연세조찬기도회(회장 서문준)는 연세대학교 개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미주 복음방송 공개홀에서 조찬 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조찬기도회는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연세 동문들과 교계 인사들이 함께 모여 모교의 발전과 세계 속의 사명 감당을 위해 뜻을 모으는 뜻깊은 자리였다.

이날 설교는 남가주 임마누엘교회의 문두진 목사가 맡아,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

의 메시지를 전했다. 문 목사는 "억울함을 참아내고, 원수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고 강조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미주 연세조찬기도회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고, 미주 내 동문들과 지역 사회를 위한 기도와 나눔의 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김민선 기자

국내 유일의
공적 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

수수료는 3년간 0원 ('25년 한시)

국가지원금은 3년간 20%

최저임금의 130%('24년 월평균 273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10%를 근로자, 사업주에게 각각 10%씩 지원

안정적 수익률 14.67% 달성

2024년 12월 기준 누적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푸른씨앗 고객센터 1661-007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검색하세요!

푸른씨앗 홍보모델 김성주

월 그레함 “청년들이 점점 더 신앙과 연결에 목말라해”

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자인 월 그레함(Will Graham) 목사가 최근 미국의 한 라디오쇼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이 점점 더 신앙(faith)과 연결(connection)에 목말라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빌리 그레함 복음주의협회(BGEA) 부대표이기도 한 월 그레함 목사는 이 방송에서 게스트 호스트인 로즈 테넌트가 “지금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자 동의했다. 그는 캔터키주 월보어에 소재한 애즈베리 대학교, 앨라배마주 오번에 소재한 오번 대학교 등 여러 대학에서 최근 몇 년 동안 일어난 부흥 운동을 언급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 학교들 중 일부는

기독교 학교도 아니다”라며 “대부분은 기독교 학교가 아니다. 바로 그것이 이 학교의 독특한 점이다. 이 학교에는 하나님께서 학교를 방문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오셨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 전역에서 수만 명의 대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있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테넌트는 지난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학교 풋볼팀 선수들이 인도한 특별 캠퍼스 예배에서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던 이야기를 회상했다. 그녀는 또한 성경 판매량, 특히 청년들 사이에

서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도서 조사 업체 서캐나 북스캔(Circana BookScan)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까지 미국에서 성경 판매량이 2023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삶의 의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전했다. 그레함 목사는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책이다. 청년들이 성경을 탐독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진리에 목말라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월 그레함 목사. ©BGEA

테넌트는 그레함 목사의 행사 중 하나에서 ‘젊은 Z세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세대는 자신의 세대가 전례 없는 고립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테넌트는 “오늘날 청년들이 가장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가장 고립되어

있다고 말했다. 당신과 저를 비롯한 다른 세대는 그렇지 않았던 정도로 고립되어 있다”라며 “이것은 이 세대에게는 매우 새로운 일이며, 마침내 그들이 육체적, 인간적 관계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연결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에 동의하며 “청년들의 영혼에는 큰 갈증이 있다. 이전에는 그런 갈증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찾고 있다. 영적으로 갈증이 많고, 진정한 관계를 찾고 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의

미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혼자 살아가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다. 다른 신자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의도된 것이다. 특히 대학 캠퍼스에서 그들이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바나 리서치가 발표한 ‘2025 교회 현황’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급격히 높아졌으며, 2019년과 2025년 사이 Z세대 남성의 경우 15% 포인트, 밀레니얼 세대의 경우 19% 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미경 기자

美흑인 대형교회, 학자금 대출 상황에 1억 8천만 원 기부

미국의 한 흑인 대형교회가 대학 졸업생 11명의 빚을 탕감하기 위해 13만2천여달러(약 1억8천6백만원)를 기부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1803년 설립되어 현재 약 1만여명의 신자를 보유한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는 세인트 오거스틴 대학교(SAU) 졸업생 11명의 학자금 대출을 면제하기 위해 13만2천4백69달러를 기부했다. SAU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기부금은 5월 3일(이하 현지시간) 졸업식 전 전달되었으며,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대표들이 졸업식에 참석했다. SAU 임시 총장 마커스 H. 베제스는 보도자료에서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의 은혜로운 행위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기관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믿음과 협력의 실천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는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SAU 전체 구성원에게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부는 신앙과 협력이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자신감 있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다. 이는 우리의 희망을 되살리고 SAU의 밝은 미래를 더욱 확고히 한다”라고 했다.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 담임목사인 하워드-존 웨슬리 목사는 보도자



하워드-존 웨슬리 담임목사가 지난 2월 18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알프레드 스트리트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고 있다. ©YouiTube/Alfred Street Baptist Church

료에서 “이것이 바로 사역의 모습”이라며 “우리는 학생들과 HBCU,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이 졸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이번 기부는 SAU가 광범위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인증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다. 올해 초, 남부대학협회(Souther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Schools) 산하 대학위원회는 SAU의 인가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SAU는 이 결정에 항소하기 위한 중재 절차를 진행 중이다. SAU는 지난 3월 중재 절차가 진행되

는 동안에도 대학이 계속 운영될 것이며 5월에 졸업하는 학생들은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위를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SAU는 익명의 기부자로부터 7천만 달러 규모의 돈을 받았고, 그달 말까지 확보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정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월 발표에서 소피 김슨 이사는 “우리가 확보한 기금은 지금 입학하는 학생들과 미래 세대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한다”라며 “SAU는 단순히 자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 펠킨스의 변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국토안보부, 국내 이민자 검거 도울 주방위군 2만 명 요청

국경배치 병력과 별개… 국방부, 이례적 요청 검토 착수

미 국토안보부가 전국의 이민자 검거를 지원하기 위해 2만 명의 주방위군 병력을 요청했으며, 미 국방부가 이 같은 이례적 요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트리샤 맥로플린 국토안보부 대변인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맥로플린 대변인은 국토안보부가 “범죄 불법 체류자를 체포·추방하라는 미국 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수행에 도움을 줄 부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국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부 국경에 배치된 군대와 달리 이 주 방위군 병력은 각 주에서 파견돼 내륙 지역의 추방 작전을 지원하는 데 투입된다. 주 방위군 병력의 활용 방법은 주지사의 통제하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포시 코미테이터스법에 따라 연방 명령에 따른 군대는 국내법 집행에 투입될 수 없지만 주 통제 아래 있는 병력은 국내법 집행에 투입될 수 있다. 주방위군 2만 명이 추가되면 이민 단속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내 이민 집행을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총 2만여 명의 직원을 3

개 부서에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국내에 체류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체포, 추방하는 일을 직접 담당하는 부서 '단속 및 부방작전국'에 약 6000명의 법 집행관을 포함해 약 7700명의 직원이 있다. 이러한 요청이 왜 주정부들이 아닌 국방부에 전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미국은 이미 미국-멕시코 국경을 따라 주 및 연방 병력에 따라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 중 일부는 국경과 인접한 새로 군사화된 좁은 지역에서 마주치는 이주민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편 이러한 2만 명의 주방위군 병력 요청은 뉴욕 타임스(NYT)가 처음 보도했다. 유세진 기자

美나토대사 “올해 하반기 유럽 주둔 미군 감축, 6월 말 논의할 것”

매슈 휘태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재 미국 대사는 16일(현지 시간) 올해 하반기 나토 동맹국, 유럽 국가들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감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위크,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는 이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이 유럽 주둔 미군을 감축할 것이냐는 질문에 “나토 틀에서 이런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6월 24~2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방위 부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미 NBC는 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동유럽에서 최대 1만 명의 병력을 철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6명의 미국 및 유럽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폴란드 등에 배치된 2만 명 중 1만 명을 철수하려는 방안이다. 김예진 기자



한국해양진흥공사
KOREA OCEAN BUSINESS CORPO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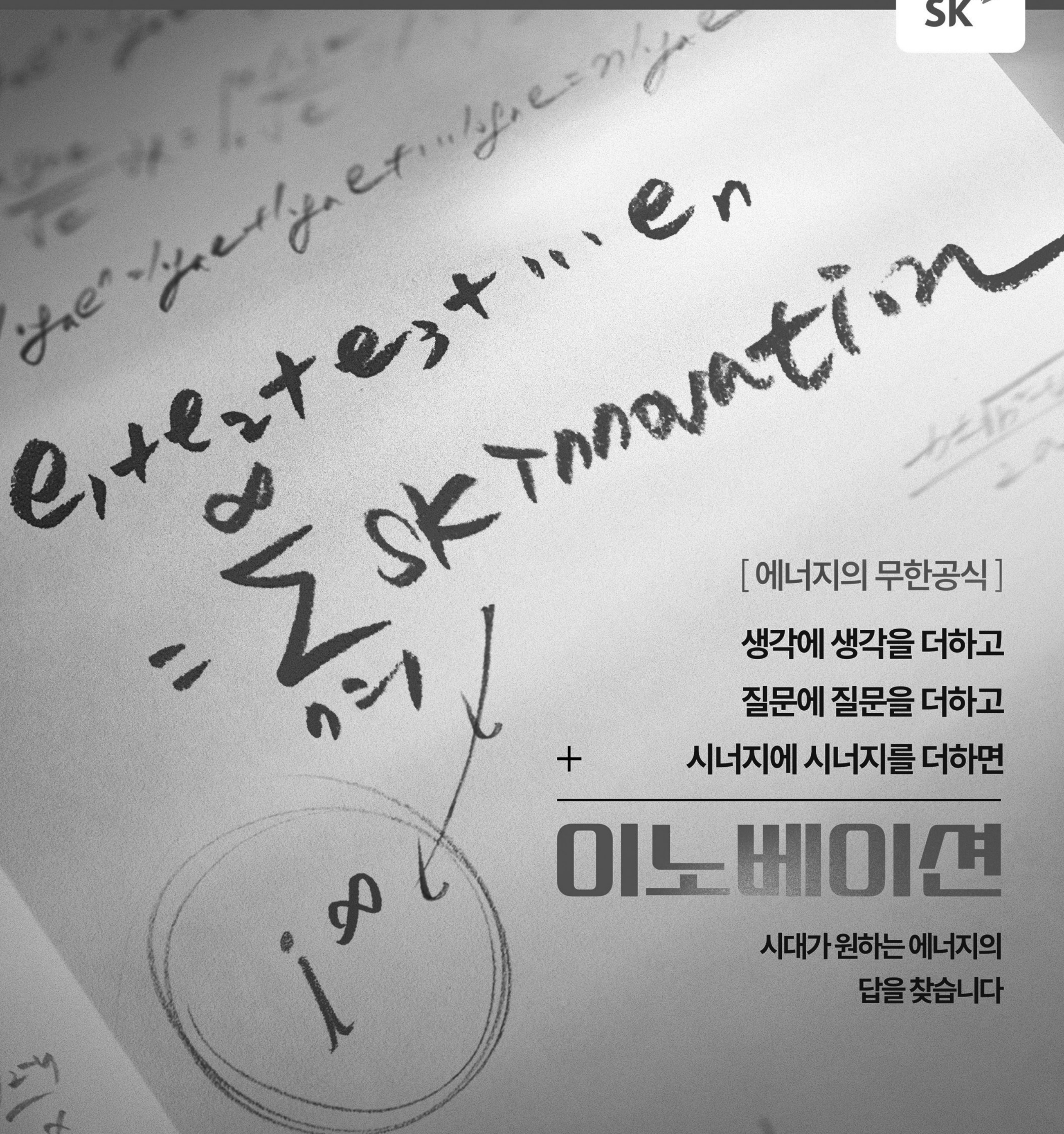
해양산업 맞춤 금융지원!



해양산업 맞춤형 금융지원으로
대한민국 해운·항만·물류 산업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한국해양진흥공사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에너지의 무한공식]

생각에 생각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 시너지에 시너지를 더하면

이노베이션

시대가 원하는 에너지의
답을 찾습니다



김문수, ‘규제혁신처’ 신설 등 경제공약… “대한민국 경제 족쇄 풀겠다”

규제 개혁, 노동 유연화, 지역 균형발전, 미래산업 육성 등 포괄적 경제정책 제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경제 공약을 발표하며 전방위적 개혁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구상을 제시했다. 핵심으로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자유경제혁신기본법’ 제정, 노동 유연화, 메가시티 조성, GTX 확장, 미래 기술 집중 투자 등이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대통령 김문수가 대한민국 경제의 족쇄를 풀겠다”며 “경제 판결이의 핵심은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의 민원 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를 상시적으로 관리감독·혁신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산업이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제정하겠

다”며, 이를 통해 창조적 산업 생태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노동개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가 자유롭게 일하고 일 수 있어야 경제가 비상한다”며,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고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혀겠다”고 밝혔다. 특히 선택근로제의 단위 기간을 최소 반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역 균형 발전 방안으로는 전국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으로 삼는 메가시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특화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는 ‘메가프린존’과, 지자체가 창의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화이트존’을 도입하겠다”고 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경제 공약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했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4개 광역권 GTX 사업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

고 있다. 김 후보는 “GTX를 전국 4개 광역권으로 확대해 교통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GTX 설계의 주역은 바로 나 김문수다. 암기 내 GTX A, B, C 노선을 개통하고 D, F 노선을 착공하겠다. 경기지사 시절 시작한 GTX를 대통령으로서 반드시 완성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 우주 등 이른바 ‘3+1’ 미래 기술 분야를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딥테크 스타트업 2,000개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했다. 또한 소득공제 및 양도차익에 대한 세제 혜택도 제 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 예산의 5%를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국가전략기술 R&D 예산을 5년 내 1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며,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할 컨트롤타워로 ‘경제안보교섭본부’를 설립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호수 여의도연구위원장은 김 후보의 정책에 힘을 실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 후보의 정책은 무책임한 ‘먹튀 경제론’”이라며, “재정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성과를 낼 수는 있으나, 그 부담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 후보의 공약에 대해 “지금 당장 돈을 푸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규제 권한을 줄여 국민 모두가 뛰는 경제 기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세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없이 지출만 늘리겠다는 것이 민주당 공약의 문제”라며, “세수를 늘리려면 세금을 낮추거나 규제를 철폐하거나 경제의 숨통을 터주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후보의 공약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내국인 진보 자격 감소 속 외국인 가입자 급증

저출생 영향으로 내국인 감소
중국인 2만6000명 늘어,
상호주의 적용 논의 본격화

저출생의 영향으로 최근 4년간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감소한 반면,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가입자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는 2만 6000명 이상 증가해, 내국인 감소 추세와 뚜렷한 대비를 보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에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자 수는 2020년 29만4876명에서 지난해 26만2034명으로 3만2842명 줄었다. 감소세는 2021년 28만3791명, 2022년 27만4759명, 2023년 25만5287명으로 이어졌으며, 지난해에야 소폭 반등했다. 이러한 변화는 출생아 수 감소 등 저출생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꾸준히 증가했다. 중국인의 경우 2020년

3만129명에서 2023년 5만6425명으로 2만6296명 증가했고, 같은 기간 베트남 국적자는 1만3714명에서 5만9662명으로 급증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는 6128명에서 1만2150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수도 늘었다. 2020년 11만1230명이었던 외국인 상실자는 지난해 22만9517명으로 증가했다. 이는 사망, 출국, 국적 상실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것이다.

김미에 의원은 “내국인 가입자는 줄고 외국인 가입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상황 변화에 맞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특히 건강보험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외국인의 건강보험 수급 자격에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외국인 본국에서 한국 국민에게 건강보험과 유사한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유학생이나 난민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의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부과액은 8103억 원, 급여비는 8743억 원으로, 약 64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8월 기준으로 중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수는 10만 명을 넘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도 상호주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며 “한국 국민이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형평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진민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호주의 적용 시, 출신 국가의 건강보험 제도 유무 및 가입 기준 차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의 의료보장 수준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정책적으로 유입된 인력에 대한 의료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최근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경우도 과거에 비해 적

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해외 주요 국가 중 외국인에게 건강보험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가입 배제는 인권 문제, 외교 갈등, 관계 부처 외국인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국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상호주의 적용은 의미가 있지만, 건강보험 자격에서의 차별은 인권 문제 및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겠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가입 요건 강화, 본인부담금 가산, 내국인과 외국인의 건강보험 제도를 분리 관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나래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3년 만의 협상도 ‘입장차’만 확인

양측, 포로 1000명 교환 합의
했지만 핵심 쟁점에서는 평행선
휴전 문서화엔 의견 접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약 3년 만에 직접 마주 앉았지만, 협상은 뚜렷한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16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진행된 이번 회담은 전쟁 발발 이후 오랜만에 성사된 공식 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입장 차이만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 대표단을 이끈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보좌관은 협상이 끝난 뒤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측과의 직접 회담이 막 끝났다”며 “우리는 결과에 만족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접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의 구체적인 성과로서 양국 간 포로 1000명을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 대규모 포로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또 “우크라이나 측이 국가 정상 간 직접 회담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이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휴전에서 다음 휴전 조건에 대한 양측의 비전을 문서화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양측의 휴전 관련 비전을 문서로 구체화하



러시아 우크라이나 협상 현장의 모습. ©현지 영상 캡처

는 데 합의했고, 이후 합의된 방향에 따라 협상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측 역시 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을 보였다. 협상단을 이끈 루스렘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자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1000명씩 포로를 교환하기로 논의했다”며 “교환 날짜는 이미 정해졌지만, 아직 공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 현안에 있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만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 헤오르히 티하는 협상 후 “러시아 대표단은 협상 중 여러 가지 용납할 수 없는 입장을 내놨다”고 밝히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우크라이나 협상단은 “침착한 방식으로 자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전

쟁을 끝내기 위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또 다른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에서의 군 철수를 요구하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몇 년 간 간접적 경로를 통해 소통해왔던 양국이 전면전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은 공식 협상이었다. 하지만 회담은 약 100분도 되지 않아 짧게 마무리됐으며,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협상은 상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평화로 향하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지는 못했다. 다만, 포로 교환이라는 인도적 조치와 향후 휴전 조건에 대한 문서화 논의는 다음 협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앞으로도 추가 접촉을 이어가며 협상의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연 기자



“THERE IS A BEAUTY THAT REMAINS WITH US AFTER WE'VE STOPPED LOOKING.”
CORY RICHARDS,
PHOTOGRAPHER AND EXPLORER, WEARS THE
VACHERON CONSTANTIN OVERSEAS.


VACHERON CONSTANTIN
GENÈVE | ONE OF NOT MANY.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I

본문: 마태복음 2장 1~6절
설교: 그안에진리교회
이태희 목사



우리가 어떤 나라의 역사를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로마를 “로마 아이테르나”(Roma Aeterna), 즉 “영원한 로마”라고 표현한다.

바벨론 제국, 앗시리아 제국, 페르시아 제국,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제국, 징키스칸의 몽골 제국, 이 외에도 수많은 제국들이 시대마다 일어났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다. 물론, 로마 제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역사가들이 로마를 “영원한 로마”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로마 제국은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 그 로마 제국이 이 땅에 남긴 문화와 문명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서,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것을 만나고 또 향유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우리가 “공화정, 공화국, 공화주의”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한다. “Res Publica” “공공의 것” “Public Thing”이라는 의미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한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의 것”이라는 의미다. 즉,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이 공화주의라는 정치체제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로 로마 공화정 시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로마의 공화정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땔레야 땔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태어났고, 로마법에 따라 로마 총독과 로마 군사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서 처형 당하셨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다. 특별히 그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하나가 되어 어거스틴, 마틴 루터, 칼빈, 존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사는 “과거사”인 동시에 “현재사”요, “정치사”인 동시에 “교회사”이며,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영적인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로마 아이테르나”, “영원한 로마”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로마사의 세계사적 의의에 대하여 19세기 독일의 역사가였던 랑케(1795-1886)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모든 고대사는 하나의 호수로 흘러 들어가는 흐름이 되어 로마사로 흘러 들어가고, 근대사 전체는 로마사로부터 다시 흘러 나

왔다.”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근대사”가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로마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오셨기 때문이다. “고대사”가 “로마사”를 통과하면서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게 되었고, 고대사 안에 복음이 녹여지면서 근대사, 근대 문명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복음이 녹여진 근대사가 대서양으로 흘러 들어가고 지중해로, 태평양으로 흘러 들어가, 결국에는 그 복음이 대동강을 통해, 그리고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 대한민국의 젓줄인 한강으로 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반만년 동안 우상들의 젓을 물고 살아 가던 이 민족은,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녹여진 젓을 먹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오늘날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한 마디로, 예수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된 것이다.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나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사람마다, 가정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영원토록 변화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BC63-AD14)가 통치하던 시기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한 도시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그 아기의 이름은 바로 예수다. 그 때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한다.

- 1.그 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 2.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 3.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 매(눅21-3)

마태는 이렇게 기록한다.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21-6)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 왕은, 결국 베들레헴과 그 지경 안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일 것을 명령한다. 로마 제국 안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무시무시한 정치권력 투

쟁을 촉발시켰다. 이것은 기독교의 탄생과 교회의 탄생을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시작부터 매우 강력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언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발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행17:7)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교적인 지도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이다. 그것도, 그냥 어떤 일개 국가의 왕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는 “만왕의 왕”(King of Kings)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소동이 일어난 곳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 아니라, 헤롯 왕과 로마 제국의 정치권력자들이 모여 있었던 “왕궁”이었다.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리바이벌 코리아와 같은 옥외 집회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가 본격화되었다. 당연히 리바이벌 코리아도 예외가 아닐 것이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도, 선관위 관계자가 저의 설교를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아주 담대한 정치적인 발언을 한 가지 하려고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대한민국의 왕이실 뿐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왕들의 왕,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유일한 주권자,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로 고백하며,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우리의 충성을 다짐하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인 것이다.

설교자들의 설교는 이 땅의 성도들은 물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상기시키는, 그리고 그 분 한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충성을 다 바칠 것을 촉구하는 “정치적인 연설”이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전”이며, 세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일종의 시민권 선서식과 같은 “정치적인 서약”이다.

심지어 헬라어로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이 모여 정치적, 사법적 결정을 내리는 평민들의 민회를 뜻하는 정치적인 용어였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이었고, 그 황제를 경배하는 것이 로마 시민들의 정치적인 책임이었다. 그런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반국가세력으로 간주되었고, 그들에 대한 정치경제사회적인 박해는 제국의 공공질서와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 공의로운 일로 간주되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의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었다. 로마 황제에 반역하는 새로운 정치 공동체를 꿈꾸는 그의 정치적인 도발 행위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은 지금도 동일하다. 비록 정치적인 안정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들만큼 그것이 피부에 생생하게 와 닿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이 복음의 본질, 예배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정치적이다.

이 땅의 모든 정치적 격랑 속에서, 오직 만왕의 왕되신 그리스도만을 예배하고 그 분에게만 충성을 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독교의 정치적인 본질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 교회를 비롯한 서구의 교회들이 교회 내의 정치적 분열로 인해 큰 혼령을 앓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교회와 정치를 결합하여 교회의 본질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분리”나 “교회와 정치의 과도한 결합” 모두, 복음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매우 정치적이라는 사실을 간과함으로써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가 하나의 정치체제라는 개념을 회복해야 한다. 온 나라 모든 백성들이 우리 모두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게 되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해짐으로 모든 나라와 족속이 그리스도의 유일한 왕권 아래 하나가 되어지는 정치적인 통합. 그와 같은 통합을 추구하는 정치 운동이 바로 “선교”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는 이 땅의 정치사회적인 상황을 주시하며, 항상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감시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땅의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는 말아야 한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인 어네스트 베커의 말에 따르면, 사회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종교적인 체합에서 얻었던 만족을, 로맨틱한 사랑에서 얻으려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나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돈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이 영적인 빈자리를 채울 또 다른 후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치”다.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기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정치 활동은 단순한 정치 활동이 아니라 종교 활동이 되어 버린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서구 사회는 물론 한국에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그 공백을 “정치”가 대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성경적인 가르침에 입각하여 분명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동시에 세속 정치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음으

로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한민국의 통치자이시요, 열국의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한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마치 로마 제국 시대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칼 앞에서도 로마 황제가 아닌 그리스도만을 그들의 왕으로 고백했듯이, 예배를 금지하는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던대로 하루에 세번씩 기도하였던 다니엘과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투옥되고 순교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지금 이 시간에도 감정은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만왕의 왕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있는 북한동포들과 같이, 우리도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임을, 이 뜨거운 정치적인 현장 한복판에서, 담담하게 증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패트릭 슈라이너 미드웨스턴 신학교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어떤 정치 집단에 대한 애정이 크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충성보다 훨씬 작아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정치권력에 대해 지나치게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너무 많은 힘을 부여하고 있다. 진정한 정치적 삶을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함으로써, 가이사의 통치를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이다”

신약 성경을 보면,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같은 사람이 지배하던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도들이 가이사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횃수를 세어보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매우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로마 황제의 영향력에 대한 의도적인 무시처럼 보여질 정도다.

1세기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의 주권을 매일같이 상기해야만 했다. 그들은 무역할 때마다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주고받았다. 도시 곳곳에 세워진 황제의 동상과 기념물 아래를 지나가야 했고, 로마 총독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행정적·사법적 불의를 목격해야 했다. 이런 로마의 그림자 속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행한 가장 혁명적인 행동은 로마 황제에 직접 맞서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궁극적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대부분 사람의 시선을 로마의 권력이 아니라, 더 위대한 권력인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로 돌렸다. 우리는 이 전략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이 정치적인 위기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인 활동.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만 부르짖는 것이다. <계속>

※ 상기 설교는 지난 5월 17일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진행 된 제5차 리바이벌코리아 미스바 광장 기도회에서 이태희 목사가 설교한 내용 전문입니다.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태로운 가계의 기회를

- 개인연세저전 해임면도
- 소상공인 자금접사 세출일기금

침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저형용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d (온비드)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혁신펀드
- 경영 선택금융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전문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당신의 설교자를 검증하십시오!

이반석 전도사
예장백석 총회
안양노회



오늘의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방금 봉독한 성경구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본 절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가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인이자이면 한번쯤 들어본 유명한 신앙고백입니다. 이 신앙고백을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방금 봉독한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네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이 방금 읽은 성경구절은 상당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성경해석 차이를 불러일으킨 중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여기서 ‘네게’를 사도 베드로에 한정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게만 천국 열쇠, 다시 말해 천국으로 가는 문을 여는 기초를 제시해주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근거하여 로마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선정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반면,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받은 개신교에서는 여기서 천국열쇠를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 모두가 이어받았다고 해석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많은 사도

들 중 한 명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속한 장로교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교파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기에 로마 카톨릭과는 해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로마 카톨릭은 개신교와 상당히 많이 다른 종교가 되었습니다. 신학적 해석 차이, 성경해석의 차이가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눠지게 한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른 신학이란 존재한다”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왜 기독교를 믿으십니까? 기독교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여러분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다시말해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들도 삼위일체를 따르고 개신교와 같은 사랑교회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천주교가 아닌, 기독교, 구체적으로 개신교를 믿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만의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적인 개신교 신학자 중에서는 로마 카톨릭의 교리적인 잘못을 지적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 중 일부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라는 공격적인 주장을 하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쯤 생각해봐야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당신은 왜 천주교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까? 이는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마 카톨릭이 교리적 문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도 저희와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그들의 신앙고백이 제가 따르는 개혁교회의 신앙고백과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제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인이 아닌, 개신교인이 되었습

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개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성경 구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인간적인 공로도 우리가 구원받는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을 그 어떠한 선행도 충족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것이 약 500년전 종교개혁을 통해 우리의 신앙 결고서 만났던 바입니다. 개신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 성경구절을 읽고서 주장했던 것이 존 칼빈을 통해 체계화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 장로교의 구원관을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키워드로 정리될 수 있는 개신교 정통신학이라는 첫 번째 갈래입니다.

이제 신학의 두 번째 갈래를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성경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신학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이 구절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들은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한다는 것이 아닌, 이성적 사고를 취함으로써 지시적인 완전함을 얻게 된다고 해석합니다. 다시말해, 지식인이 됨으로써 구원에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는 이성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신학의 두 번째 갈래 ‘자유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란 본래 계몽주의 시대 때 이성적 사고를 요구했던 철학적 흐름에 대

한 응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나온 악한 신학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자유주의 신학이 체계화되어 가면서 정통신학과는 다른 모습을 띄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나라는 주장을 하거나 기독교 이단의 교리를 옹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작금의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으로 위험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유주의 신학이 학문적으로는 가치 있을지는 몰라도, 바른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공격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정통교회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신학의 두 번째 갈래 자유주의 신학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봅시다. (딤후 3장 16절)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바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의 권위를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가진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특별한 말씀인 것을 믿고 성경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성’이라는 키워드로 요약되는 신학의 두 번째 갈래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자유

주의 신학은 본래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성’이라는 무기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죽였고 성경을 난도질하는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더이상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독보적인 권위가 추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반발로 신정통주의라고 불리는 신학적 흐름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학의 세 번째 갈래 신정통주의입니다. 신정통주의란 다시 등장한 정통주의라는 뜻으로 정통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믿음’과 자유주의 신학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이성’ 모두를 붙들려고 하였습니다. 현대의 흐름에 맞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결국 신정통주의신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물론, 정통신학을 추구하는 제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현대적으로 이해 및 보호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신정통주의 신학은 의의가 있습니다. 적어도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과는 달리, ‘성경이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이다’라는 점에는 동의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성도 여러분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설교자를 검증하고 있습니까? 설교자를 검증하십시오. 당신의 설교자는 어떠한 신학

적 토대 위에 서있습니까? 정통신학입니까? 자유주의 신학입니까? 신정통주의 신학입니까? 설교자가 배운, 추구하는 신학이 결국 당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설교자가 추구하는 신학이 검증되지 않았다면, 당신의 영혼에 큰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명한 의사로서 왕실에서 근무하다가 결국 목회자가 된 영국의 명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지 오래 되었지만, 여전히 그분의 설교관은 저를 포함한 많은 설교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사가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전문가라면, 목사는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전문가입니다. 의사가 칼을 들고 수술을 통해 암을 고치는 것처럼 목사의 설교는 영혼의 죄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서 수술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신뢰할 수 없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설교자를 검증하십시오! 설교자를 검증하십시오! 설교자의 설교에 귀 기울이시되 바른 신학 위에 그 설교가 서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를 통해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최민기 선교사
과테말라 선교사



사람에 따라서 회심의 순간이 비교적 분명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나는 전자에 속하고 아내는 후자에 속한다. 아내는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이다. 장모님은 전도사님이신데, 신학을 마쳐자마자 처녀 때 교회를 개척하였다.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시골 마을에 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 지금 그 시대 간증을 들으면 비상식적인 것을 뛰어넘어 범죄에 가까운 수난을 당하신 일이 많다. 예를 들어 마을에 교회가 생기는 것을 싫어한 사람들이 교회에 독사를 풀었다든지,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똥물을 뿌린다든지 그런 일들이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그 시절 개척교회의 일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자 목사님을 모셨고 그 교회가 지금도 남원의 시골 마을에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아내는 교회가 학교보다도 더 편하고 친근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태신앙 인들이 대체로 그렇겠지만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분명한 회심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런 모태신앙 인들은 겉으로는 느슨하고 열정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여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강점이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 어릴 때는 성당에 다녔는데 그마저도 상당히 떠안떠엄 다녔기에 내 기억에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도 전혀 이해 못 했던 것 같다. 아니 라면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강했다. 왜냐하면 내 학창 시절에는 락과 헤비메탈이 유행하였는데, 지금 아이들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그때 당시 내가 좋아하던 밴드들의 기본적인 컨셉은 반기독교였다. 그래서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라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던 중 대학 졸업을 앞두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해준 전도자를 만났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16:31),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사도행전4:12)

전도자는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뿐임을 확신 있게 이야기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진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는 것은 알았지만 나와 직접적인 관계없는 사건이었다. 그런 이야기는 진부한 종교적 가르침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달

랐다. 내가 꿈꿔온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졌다. 생각해 보니 내가 찾은 하나님은 힘이 세거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라기보다는 나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절대적 사랑의 존재였다. 내 영혼이 그런 존재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을 내 육신이 깨달았다고 할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103:1)

그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므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바치겠다고 결단했다. 그때 나는 사명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불확실한 실체를 절대적으로 신봉할 때가 있다. 그래서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버린다. 하지만 정말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가? 과연 지금, 오늘, 나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고 결단한 ‘그날’의 믿음보다 크고 성장했다고 할 수 있을까? 물론 신앙이 다듬어지고, 태도가 성숙해졌으며, 성경 지식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순수한 ‘믿음’ 자체만 놓고 본다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날 밤 전도자는 나의 회심에 도장을 찍듯이 마지막 질문을 했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의학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존슨앤드존슨은 헬스케어 솔루션의 모든 영역에서 혁신을 앞당겨 전 세계 환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구하며, 내일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끝없이 도전합니다.

(주)한국안센은 존슨앤드존슨 제약부문의 국내 법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janssen.com/johnson-johnson-innovative-medicine
혹은 www.janssen.com/korea 에서 확인하세요.



Johnson&Johnson

초고령화 시대의 ‘은빛 청년들’

이상명 총장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예상보다 빠른 속도다.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속도를 이룬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7% 이상 고령화 사회, 14% 이상 고령 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구분한다.

한국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되어(2024년 12월 23일 기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번째다.

이런 추세라면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46년부터 일본을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며, 2062년에는 홍콩을 제치고 전세계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초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이다.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은 일본 10년, 독일 38년, 프랑스 39년이 각각 걸

린 반면에 한국은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

미주 한인사회의 역사는 한민족이 걸 어온 근현대사의 축소판이자 미러 이미지(mirror image)다. 미주 한인사회와 한국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란 뜻이다. 한국의 국내 현실이 큰 여과 없이 그대로 미주 한인사회에 투영되어 왔음을 안다면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 국가가 된 한국 사회의 변화는 미주 한인 교계와 사회의 미래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미 인구조사국(U.S. Census Bureau)에 따르면 미국은 2015년 15%를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했으며, 2030년엔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100세 이상 인구는 세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향후 30년 동안 4배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미국 시장조사 전문기업 인사이더 인텔리전스(Insider Intelligence) 또한 2030년까지 모든 베이비붐 세대가 만 65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저출산, 초고령 사회는 머지않는 미래에 세계의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을 것이다. 지나 러문도 미 상무장관은 “고령화

문제가 벽돌 더미처럼 미국을 강타할 것”이라고 했으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저출산에 따른 세계 인구 붕괴는 인류 문명에 지구 온난화보다 훨씬 큰 위협 요소”라고 주장했다. 초고령 사회로 전 세계가 재편되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을 분야는 경제다. 고령화에 휘감긴 지구촌의 어둔 풍경을 세계 경제에 덮치는 ‘은빛 쓰나미’라 표현할 정도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소비가 위축돼 국가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우려가 심각하다. 가족구조 변화와 은퇴 후 사회적 역할 축소 및 상실, 배우자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신체기능 저하, 경제력 감소 등 노년기에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와 문제들이 우울, 외로움, 고립감, 자괴감 등을 유발한다. 급기야 스스로 사회적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 여겨 극단적 선택으로 치닫기도 한다.

“노인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와 세상에 묻지 말고, 노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물어야 할 때이다.” 스탠퍼드 장수연구센터(Stanford Center on Longevity)의 설립자이자 심리학자인 로라 L. 카스텐슨 교수의 말이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노년을 위한 기도를 다음과 같이 올린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시 71:18 새번역).

하나님과 그 은혜 안에서 꿈 꾸며 계속 성장하는 시니어는 나이는 들겠지만 늙지 않는다. ‘은빛 청년들(silver youth)’이다. 이들에게 있어 시간이라는 것은 어쩌면 일직선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물리적 시간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생애 동안 ‘의미있고 가치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 질적으로 주관적이고 위로부터 임하는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에 가깝다.

나이 들은 하나님의 부름으로부터의 멀어짐이나 떠남이 아닌 그 안에서의 지속적 ‘머물’과 ‘자람’이다. 시니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활성화되면 교회 안팎에 새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다.

이런 새로운 변화에는 우리 한인 사회와 교계의 자원과 연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시니어 사역의 지속성과 함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니어의 영적, 정신적 성장을 도와 문화적 성숙과 영적 지혜로 교회와 세상을 섬길 ‘은빛 청년’ 시니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져야 할 때다.

청년들의 공동체를 향한 갈망

이상기 대표
AM미니스트리
(AM 선교회)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기성 교회의 틀 안에서 때로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더욱 친밀하고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반항이나 세속적 유행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리고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를 향한 거룩한 목부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공동체를 향한 갈망은,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교회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흔히 웅장한 건물이나 잘 짜인 조직, 혹은 주일의 정형화된 예배 의식을 연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 즉 헬라어 ‘에클레시아(ἐκκλησία)’가 의미하는 바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자체입니다. 이는 곧 건물이나 인간 사람에게, 조직이 아닌 관계에게, 형식이 아닌 생명력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청년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첫째, 소그룹 중심의 유기적 공동체입니다. 대형화된 교회 시스템 안에서 개인이 느끼는 익명성과 소외감을 극복하고, 서로의 삶을 깊이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소그룹은 매우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그룹은 정기적인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넘어, 삶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각자의 은사를 따라 함께 사역하는 ‘작은 교회’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모임의 횟수가 아니라, 진정성 있는 관계와 상호 돌봄이 이루어지는 깊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 지향적 사역 공동체의 활성화입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을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실천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청년들의 다양한 관심사와 은사를 반영한 목

적 지향적 사역 공동체(예: 문화예술 사역, 사회봉사, 환경운동, 학문 연구 등)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 청년들은 자신의 신앙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깊은 유대감과 소속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기존 선교단체 및 초교파적 네트워크와의 연계 강화입니다. 이미 많은 선교단체나 청년 사역 단체들이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교회가 모든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면, 이러한 외부 자원과의 적극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청년들에게 더욱 폭넓은 선택지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답장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넷째, 삶의 현장 중심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주일에만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청년들의 일상생활, 즉 학업, 직장, 가정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신앙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공동체의 모색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지속적인 소통과 격려, 혹은 지역 기반의 작은 모임들을 통해 신앙이 삶과 분리되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 숨 쉬는 역동성을 지닐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안적 모색이 기존 교회의 가치와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기성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을 격려하고 시도하고, 지원하며, 때로는 새로운 공동체를 품어내는 모험적인 소통과 격려를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전통에 얽매이기보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청년들의 영적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유연성과 포용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시대 청년들의 영적 갈급함과 공동체를 향한 열망은 교회에게 주어진 귀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며, 다음 세대를 통해 그분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청년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신앙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갈 수 있는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임 사역자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가정, 부모님, 자녀, 형제와 자매 생각만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족을 생각하다 문득, 사역자들, 목회자, 선교사들의 자녀들의 이름과 상처가 떠올랐습니다. 사실, 사역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는 괜한 투정이나, 푸념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역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와 선교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전임 사역자들의 자녀들만 겪는 특수한 상황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사역자인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눈치가 빠릅니다. 늘 눈치를 봅니다. 시선을 의식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학업 성취도가 부모님의 명예나 수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실제로 어떤 선교사님 자녀들은 어릴 적, 선교지에서 또래 학생들로부터, 너는 선교사님 자녀니까, 우리에게 나눠 줘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늘 물건을 빼앗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되고 나서야, 부모님께 고백하며, 자신들에게 강박과 피해의식 우울증이 있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사역자들의 자녀들이 겪는 또 한가지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바로 아무 상관없는 부모님의 소명과 사명을 태어날 때부터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수고와 헌신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성장하는 동안, 줄곧 사역지를 옮겨 다니는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옮기면서, 늘 친구들과 헤어져야만 하는 슬픔을 겪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아픈 기억에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부모님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성장하여,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목회자 자녀들은 두 자녀 중 하나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릴 적부터 늘 의자와 테이블을 부모님과 함께 나르고, 자신들보다 더 어린 교회 아이들을 돌보아야 했던 무거운 짐 때문에 성인이 되자마자 부모님을 떠나, 다시는 부모님 계산 곳을 방문조차 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자녀는 정반대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 안타까워 나이가 서른이 되어서도 시골 교회에서 아버지를 돕고 섬기며, 자신의 미래는 뒤로 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그 자녀가 선교지에서 1년 선교를 하다가 남편을 만났습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선교사 자녀는 선교사님들의 잦

은 선교지 이동으로 인한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 때문에 사춘기를 겪으면서, 우울증이 시작되었고, 무척 오랜 시간동안 마음의 병으로 고생하였습니다. 친구가 없는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져, 말수가 적어졌고,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트 스쿨에 입학하여 친구도 사귀고, 자신의 꿈과 재능을 펼치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도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목회자에서 선교지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불리한 조건을 뛰어 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결국 다시 부모님의 사명을 물려 받아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Your True ESG Partner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증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목사, 전도사 후보생
신·편입생 모집**
<수시모집>

◎ 최고의 교수진 (정규 박사학위 소유자 강의)
◎ 본교 교수의 수준 높은 강의
◎ 전 과정 철저한 본교 교과목 수업 ◎ 쾌적한 캠퍼스 환경
◎ 여목 제도 있음. (수시접수)

◆ 모집과정

과정	학제	지원 자격
신학부	(주/야/토요일) 8학기	· 세례를 받은 자 · 남녀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 본교가 인정하는 타 신학을 졸업하거나 · 중퇴한 자는 편입 가능
신대원	(주/야/토요일) 4학기	· 일반대학 이상 졸업자는 · 본 과정 3학년에 편입
학점은행제	월-토(10시-22시)	

◆ 특 전

□ 방학 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졸업이 가능함.
□ 여목 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 기적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 본 과정은 서울캠퍼스와 인천캠퍼스가 동일 함.
□ 모든 과정 주/야간반 운영.
□ 편목과정은 신대원에서 2학기 과정을 수료하면 됨.

◆ 입학 시 구비서류

□ 입학원서(사진 1매 부착) 1부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대원과정 지원자는 신학대학 또는 신학교졸업증명서 (졸업장사본) 1통
□ 학점은행제 수업을 통하여 정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음. (신학, 사회복지학, 상담학, 아동보육교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천총회신학** TEL. 032-465-5511~2
http://www.incs.or.kr
인천시 남동구 남동대로 925-1 국제빌딩 2층, 5층(INCS평생교육원)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2. 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3. 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4. 주소: 충북 영동읍 479-8의 1번.
5. 토지: 2,756m² (833.69평)
6.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7. 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령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교회대출안내

2019-경기군포-007

능력 못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며 저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목사님의 목회사역에 재정적인 큰 힘이 되도록 (은행근무 경력으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교회담보대출 : 교회건물, 상가교회, 성전부지 교회대지 및 건축자금
* 교회 : 연 3.99%~5.49%대 (감정가의 70~80% 대출 가능)
* 지역 상관 없음 * 성전 구입 자금
* 타 은행 담보도 가능함 * 건축 중에도 가능
* 현재 대출금액의 30%를 더 받을 수 있음
* 교회 예배 환경 보지 않음 * 교인수 상관 없음

목사님 ~ !!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성전짓기운동본부
선교국장 임요섭 목사

문의전화 : 010-9166-5600, 010-8652-5600

TEL : 031-439-5555 FAX : 031-452-5800
http://www.love-ch.net E-mail : moon4903012@hanmail.net

오직 기독교의 바른 신앙을 갖고자 하는 신자들을 위한 말씀 ⑥

「바른예수교회」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단체입니다. 전 세계의 인류가 타고 있는 가치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로」를 달려야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여호와 신」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절대 이치」의 신분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이미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민을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르쳐야 하고, 오직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만약 예수 외에 다른 것(다른 신이나 성령 등)을 가르치면 이를 가르치는 자들이나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자들은 모두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 행세를 하면서도 범죄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현실 아닙니까? 예수는 어떠한 사람들에 대하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하였나요? 또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까요? 개인에게나, 가정을 위해서나, 국가 민족, 나아가서 세계 인류의 건전한 삶을 위해서는 진정 없애져야 할 존재들이 세력을 확장하며 활개를 치고 있는 까닭에 오늘날 인류 사회가 최악으로 크게 오염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 아닌 존재를 신으로 믿고 있는 종교의 세력으로 인하여 인류가 심하게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가 없는 상태의 교회로서 여전히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가 「양의 탈을 쓴 늑대」인 줄도 모르고, 또 알고도 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골짜기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망할 때쯤 되어서야 깨닫고 돌아오려 하지만 이미 문은 닫혔습니다. 예수는 저들을 향하여 「나는 너희를 도우지 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몸 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는 길을 찾고자 부단히 애쓰는 자를 계속 찾고 계십니다. 죄악의 홍수에 떠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맑은 물줄기를 향하여 가고자 고군분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뜻을 같이하시는 분들의 광고 성원을 바랍니다.
광고 성원에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관 서적 [예수는 누구인가], [복음에 대한 해석학적 고찰]을 원하시면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바른예수교회 (김한규 010-4017-8696)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령길 22-38
광고성원전화 : 농협 3521241-2400-83 김한규

[사] 한국기독교 부흥협의회

1995년 개척하여 2번의 건축을하고
30년 동안 부흥·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부흥회

부흥회 지원

강사 약력

- 20년동안 1000회 이상 부흥집회 인도
- 한샘교회 담임목사
-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사) 現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56대 대표회장
- 現 세계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
- Good TV 부흥선교협의회 대표회장

한샘교회

- 1995.9 개척
- 2000.4 1차 성전건축
- 2008.1 2차 성전건축

방향 및 성령의 역사

- 철저히 개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 개교회의 목회방침에 따라
-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해짐
- 학생, 청년이 꿈을 꾸고, 길이 열리며 부흥·성장함
- 영·육·물질의 문제가 해결,
- 기둥이 세워지고 축복의 증거가 나타남
- 사탄의 역사가 끊어짐

신청 방법

이승현 목사 : 010-8913-7777
· 한샘교회 : 032-512-3375

지원 대상

- 농어촌교회, 미자립교회
- 낙도·오지교회
- 3 무부흥회:
- 사례, 숙소, 식사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안양 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에게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주 소 : 경기·화성시·봉담읍·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원활한 혈액순환!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항산화 건강까지

하루 2캡슐

고품질 노르웨이산

하프물개 오메가3

SELOLIFE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크리스천투데이



따뜻한 신앙인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감 있는 말버와 쉬운 문제로 건하는 반전의 예언자의 메시지!"
이 책을 읽고도 불행하면 가차없이 찾아오는 여인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 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감행감 정교(구세군 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춘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 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창원내산교회)

날 새를 함께 하소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학 (1)

이 소논문은 비교적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학의 핵심을 잘 다루고 있다. <신앙 감정론>을 중심으로 에드워즈 목사님의 구원론과 성령론을 설명하고 있다.

에드워즈 목사님은 신학자이기 전에 목회자였다. 에드워즈 목사님의 목회의 경험과 학자적인 자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신앙 감정론>은 그 중요한 결과물이다.

신앙 감정론에서 affection에 관한 해석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성의를 모두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affection을 갖게 되는 것은 성령의 주입과 관계가 있으며, 성령의 주입은 Habitus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앙은 성령의 주입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성령의 주입은 로크가 주장했듯이 마음에 도장을 찍듯이 마음에 새겨진다. 그것을 에드워즈 목사님은 '경향성'이라고 한다. 경향성은 하나님의 실체와 연계된다. 하나님은 경향성의 실체로서, 완전한 현실태이자 성향이다. 따라서 완전하시지만 내적인 완전성을 발산하신다.

성도에게 성령이 주입되면, 하나님의 경향성이 주입되기 때문에 그의 도덕적 성품을 닮아가고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을 실천한다. 그 실천

의 목적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경향성은 목적을 지향한다. 잠재태이지만, 현실태로 계속적으로 향한다. 성도는 그러나 그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다.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히 행복한 것이다. 무한히 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확대하여 장경철 교수님은 '영광화의 논리를 전개하기도 했다.

이 글은 아팍션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에드워즈 목사님의 신학, 특히 구원론과 성령론에 대한 개략적이지만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점에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 감정(affectio)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진락 목사
현대기독교아카데미 일일집중세미나 (2008년 12월 15일, 교회다움)

1. 부흥 & 복음주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부흥(revival)이라는 말은 침체된 상태에서 회복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부흥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부흥을 침체기에서의 회복이라는 의미

로 제한시키지 않고, 정규적이고 일상적인 신앙생활 속에서의 신앙적 경험을 넘어서는 성령의 특별한하고 강력한 부어주심의 경험으로 간주한다.

로이드 존스(Lloyd Jones)와 제임스 패커(James Packer)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대표적인 부흥의 사건이고, 사무엘상 7장의 미스바 집회, 에스겔의 마른 뼈들의 소생 사건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 운동과 같은 구약의 여러 사건들도 부흥이고, 나아가서 종교개혁과 청교도 운동도 부흥 운동이다. 이런 식이면 약간 이상해진다!

도식화의 위험이 있지만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복음주의 운동은 종교개혁의 역사적 정통성을 상당 부분 계승하면서 동시에 부흥 운동적인 차원에서 교회적 신앙과 복음 전도의 열정이라는 18세기적인 새로움을 가지고 있는 신앙 운동이다. 그리고 부흥 운동은 18세기에 등장한 복음주의 운동에 18세기적인 새로움을 불어넣어준 가장 중요한 신앙 운동이다.

한편, 에드워즈는 부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과 대립했다. 한 부류는 부흥을 반대하는 이성주의자들이었고, 다른 부류는 부흥

을 왜곡하는 열광주의자들이었다. 에드워즈의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 양편의 입장과 관련된 문제들 중 몇 가지만 아주 간단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로, 이성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이나 모두 공통적으로 인간의 이성과 감정을 분리시켰다. 이성주의자들은 이성이 감정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열광주의자들은 이성과 무관하게 감정이 자신의 열정을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에드워즈에 따르면, 이성과 감정은 통합된 것이다. 이성과 감정은 함께 간다-감정적인 이성과 이성적인 감정이다. 거기엔 빛과 열이 공존한다.

다음으로, 이성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은 부흥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성주의자들은 부흥에 나타나는 감정의 생생한 뜨거움을 무조건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고, 열광주의자들은 부흥에 나타나는 감정의 과도한 흥분과 무질서한 혼란스러움까지도 순수한 것으로 정당화시켰다.

에드워즈는, 전반적으로 볼 때 부흥은 분명히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잔존하는 부패와 연약함 때문에 부흥의 역사 속에도 부패와 연약함이 스며들어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자 했다.

끝으로, 윤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이성주의자들이나 열광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균형 있게 강조하지 못했다.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추상화시키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강조하려고 한다.

반면에 열광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무 충만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을 여지가 별로 없다. 양자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분리시키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신앙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실천이라고 한다면, 이성주의자들과 열광주의자들은 신앙과 실천을 분리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에드워즈는, 신앙은 실천 속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실천은 신앙 안에서 자기표현의 근거와 가능성을 얻게 된다고 생각했다.

<계속> 청교도 도서관 제공

바이블지식IN

행음과 간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행음 “(서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의 자발적인 성교, 간음을 포함)”과 간음(“결혼한 사람과 법적 배우자가 아닌 동반자와의 성교”)의 현대 사전적 정의는 꽤 간단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성적인 죄들을 어떻게 보시는 지에 대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두 가지 죄는 모두 문자 그대로도, 또한 비유적으로도 우상숭배를 언급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모든 성적인 죄는 모세의 율법과 유대교 관습에 의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약성경에서 “행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우상숭배 맥락으로도 사용되었으며, 영적 행음이라고도 일컬어졌습니다.

역대하 21:10-14에서 하나님은 여호람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하도록 한 것으로 인해, 그를 전염병과 질병으로 치셨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11절), 또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였습니 다]” (13절).

아합 왕은 음탕한 신 바알의 여승인 이세벨의 남편으로,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가장 지독한 종류의 우상숭배를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에스

겔 16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들과 “음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떠난 역사를 상세히 묘사합니다. “우상숭배”의 의미를 지닌 단어 행음은 이 장 안에서만 수차례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위 나라들에게 지혜, 부유함, 능력으로 인해 알려지게 되면서, 그것은 마치 여성의 아름다움과 같이 그 나라들에게 유혹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웃 나라들로부터 존경받고, 환심을 사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적인 관습에까지 이끌리게 되었습니다.

행음이라는 단어는 이교도의 우상숭배와 관련되어 사용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이교도 “숭배”가 의례 과정에 성교를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다른 거짓 신들에 대한 숭배에서 성전 매춘은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모든 종류의 성적 죄는 이러한 종교들에 용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숭배자들을 위해 신이 주는 더 큰 축복, 특별히 가족과 곡식의 증가를 가져다주는 수단으로써 권장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행음은 (fornication)은 간음과 근

친상간의 의미를 포함하는 헬라어 포르네이아로부터 온 것입니다. 포르네이아는 동성애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불법적 정욕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또 다른 헬라어에서 온 말입니다.

복음서와 서신서들에서 이 단어는 언제나 성적인 죄에 관련되어 사용되는 반면, 요한계시록에서 “행음”은 언제나 우상숭배를 언급합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우상숭배 행음에 관여한 소아시아의 두 교회들을 정죄하시고 (요한계시록 2:14, 20), 또한 우상숭배의 거짓 종교인 말세의 “큰 음녀”를 언급하시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요한계시록 17:1-2).

한편, 간음은 결혼한 사람들이 자기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저지르는 성적인 죄를 언급하는 것이며,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문자적 비유적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사용됩니다. “간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 그대로 “결혼을 깨다”를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다른 신들에게 가는 것을 간음으로 묘사하십니다. 유대 민족은 여호와와의 배우자로

간주되었으므로, 그들이 다른 나라의 신들에게로 돌아섰을 때 간음한 아내로 비유되었습니다. 구약성경은 종종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를 다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음탕한 여인으로 언급했습니다(출애굽기 34:15-16, 레위기 17:7, 에스겔 6:9). 더욱이, 호세아서 전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선지자 호세아와 그의 간음한 아내, 고멜에 비유합니다. 호세아를 거역한 고멜의 행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기의 진짜 남편 (여호와)을 떠나 다른 신들과 영적 간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불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간음”으로 번역된 두 헬라어는 거의 항상 문자 그대로 결혼한 동반자들과 연루된 성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유일한 예외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요한계시록 2:20)을 용납했다는 이유로 정죄 받은 두아디라의 교회에 대한 편지에서뿐입니다. 이세벨은 비도덕적이고 우상숭배를 하는 관습에 교회를 끌어들였고, 그녀의 거짓 교리에 호도된 사람들은 누구나 그녀와 행음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갓케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40:2 NIV
He lifted me out of the slimy pit, out of the mud and mire; he set my feet on a rock ...

- lift out of : ~에서 들어 올린다
- slimy : (더럽고) 질척거리는
- pit : 구덩이
- mud and mire : 진흙과 수렁
- rock : 반석(磐石)

시편 40편2절
주님께서 나를 질척거리는 웅덩이에서, 진흙과 수렁에서 들어 올리시어,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행복한농어촌, 함께하는KRC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송태훈 칼럼 최초의 기독교 교회 순교자 스테반


송태훈 목사

최초의 기독교 교회 순교자(martyr)로 알려진 집사 스테반(Stephen)은 주후 1세기 당시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면류관', '왕관', 또는 '화관'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구제를 위해서 뽀뽀한 신실한 일꾼 집사 중의 한 사람이다(행 6:5).

오순절에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의 지도와 권고를 받아 스테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및 니콜라를 집사로 선택해 안수했다(행 6:5). 헬라파 유대인 집사 스테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 교회의 신실한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었다(행 6:8).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가 팔레스틴의 히브리파 과부들만을 구제한다며, 이

방에서 출생한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을 향해 원망했다. 리버디노 출신들이 세운 회당에 속한 사람들과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갈라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도해서 큰 다름이 교회 공동체 내에 야기됐다(행 6:9). 리버디노 출신 성도들은 주전 5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유대를 토벌한 이후 로마의 노예로 팔려갔다 자유인이 된 사람들의 후예이다. 구레네인은 지중해 건너편 리비아 북편 해안에 살았던 족속들이다(막 15:21). 알렉산드리아인은 북이집트에 있는 대도시 알렉산드리아에 살았고, 갈라기아 사람은 소아시아 동부에서 건너온 자들로 그 수도(首都)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이다.

집사 스테반은 각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의해 세워진 회당을 모두 돌며, 메시아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했다. 유대인들의 회당마다 신학적인 큰

변론이 일어났고, 그것을 단서로 집사 스테반에 대한 핍박이 범예루살렘적으로 시작됐다. 지금까지 들었던 성경 및 신학의 내용과 매우 다르다는 것이 핍박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 집사 스테반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지혜와 성령으로 분명하게 대답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 없었다. 매우 해박하고 논리적인 집사 스테반의 답변에 대한 열등의식이 그들에게 반영됐다.

분노한 핍박자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매수하여 위증하도록 지시했다. 집사 스테반의 설교를 통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교하게 뒤집어 놓았다. 집사 스테반이 나서서 그들의 영웅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거짓 증거하기도 했다. 유대인 최고의 선지자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규례)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한 집사 스테반이 함부로 고쳤다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고소했다(행 6:11-14). 정통 유대인 핍박자들은 뒤

에서 사악한 흥계를 꾸미며, 장로 및 서기관들을 총동원하여 집사 스테반을 강제로 체포했다(행 6:12).

집사 스테반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령을 거슬려 선포한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주후 1세기 사람들도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겼다고 신랄하게 책망했다(행 7:51-53). 성령이 충만한 그는 죽어 가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고 생명을 걸고 외쳤다. 마음을 가슴에 가득 품고 분노한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성 밖으로 끌어낸 다음, 돌로 쳐죽였다.

집사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크게 부르짖었다. 주후 1세기 당시, 로마 정부의 허가 없이 수행한 사형은 유대인에게 절대 금지된 불법 행위였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아리마대(Arimathea) 요

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屍身)을 수습한 것처럼, 경건한 성도들이 순교한 집사 스테반을 조심히 장사지냈다.

집사 스테반의 설교와 순교 사건을 통해서 초기 유대교적인 좁은 테두리를 깨고, 이방인 지역에게까지 범우주적으로 신흥 기독교가 전파됐다. 그의 거룩한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기타 이방 각지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주적으로 전파했다. 집사 스테반의 순교는 결국 복음의 세계적 진출을 위한 놀라운 도화선이 됐다.


집사 스테반의 순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실패라는 생각을 불식하고, 사단에 매인 원수들의 패배를 만방에 선언했다. 집사 스테반의 헌신과 희생이 잠재된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켜 세웠다. 비록 스테반의 육신은 죽었지만, 그의 건강한 신학과 정신은 세계와 우주를 생생하게 살려냈다. 지도자들의 희생과 헌신 없이는

어떤 공동체도 활성화 될 수 없다.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의 씨앗을 통해서 잠재된 공동체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준비된 지도자의 인품을 적극 사용해 작정하신 사역을 이룬다. 정차경제 및 신앙공동체는 세워진 지도자의 역량만큼만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는 지도자의 인격과 성향을 적극 그대로 반영하며, 미래에 드러날 현재의 모습이 된다. 미래에 세워질 공동체의 모습은 지도자의 모습 및 성향과 동일하다. 한 국가의 미래는 국가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의 인품과 연결되고, 교회의 장래는 그것을 세워 나갈 지도자들의 인격을 그대로 반영한다. 집사 스테반처럼 공동체를 위해 몸과 마음과 생명마저 바칠 수 있는 헌신된 지도자를 우리는 기필코 찾아야 한다.

새 언약과 율법

권혁승 칼럼 '언약'이란 무엇인가?(11)


권혁승 박사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렘 31:33)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새 언약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렘 31:33)이다.

이 본문은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 ‘기’로 시작되고 있다. 이는 앞 절에서 강조된 이스라엘의 실패가 반복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곧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 방법

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법을 돌판이 아닌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겠다는 새 언약의 강조가 이전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옛 언약 역시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은, 신명과 시편에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기도 하였다(신 6:6; 10:12; 11:18; 30:6, 14; 시 37:31; 40:8; 119:34).

그러나 그것은 율법 준수의 책무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강조일 뿐이다. 새 언약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마음에 기록하여 주시겠다고 약속에 있다.

율법의 준수는 언약 체결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율법은 언약의 수혜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의 시혜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길이고, 그 구체적인 방법이다. 율법은 법적인 제재나 의무사항과 같이 이스라엘을 얽매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바로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해방의 감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

법을 마음에 새기는 내면화는 언약관계 유지의 우선순위가 아닐 수 없다.

‘마음에 새기다’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전치사 ‘알’은 ‘위에(on)’를 뜻하는데, 이는 마음이 은유가 아니라 문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전치사 ‘베(in)’가 사용된다. 마음이 문자적 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마음이 곧 율법을 기록하는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다.

구약에서 ‘마음’은 정서적 장소가 아니라 도덕적 의지가 자리하는 곳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여 주신다는 약속은, 곧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동을 지배하게 하시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것은 율법을 돌판에 새긴 옛 언약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율법을 돌판에 새겼다는 것은, 곧 인간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다.

옛 언약의 돌판과 새 언약의 마음을 서로 대비시킨 것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닌다. 즉 옛 언약의 율법은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필요했지만, 새 언약에는 더 이상 그런

중재자가 필요치 않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옛 언약에서는 율법을 새길 돌을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지만, 새 언약에서는 그런 돌 대신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마음에 새겨 주심으로, 율법을 지킬 능력과 의욕을 마음에 불어 넣어 주신다.

새 언약은 율법을 지키려는 의지적 노력에 앞서 마음에 율법을 새겨줌으로, 그 자체가 삶의 한 구성요소이면서 인격의 한 부분이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되는 것을 지향하며,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

새 언약이 강조하는 율법의 그런 내면화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편안함과 그들의 죄가 사하여져 다시는 그 죄가 기억되지 않는 죄 용서의 영구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새로운 시대의 원동력인 셈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롬8:28).

모든 일에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있다. 인생에서 빛어지는 각종 일들도 서로 관련되어 있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이것에 따라 적절한 처방을 내리고 여러 가지 약들을 혼합해서 조제를 해준다. 만일 이 약들을 따로 사용했을 때 독이 되거나 해로운 것도 있다. 그렇지만 신중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된 약들은 환자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

바를레이는 위의 성경 말씀을 어떻게 설명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선하게 혼합하심을 안다.”

우리의 삶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씩 따로 떼어놓고 보면 전혀 선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것들을 하나님이 섞어서 내어놓으시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불신자들도 불행한 환경에 놓이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선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위대한 의사가 올바른 처방을 내릴 때까지 기다리라”이다.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궁극적으로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 화가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색을 이리저리 섞어 그림을 그린다. 그러나 이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는 모든 이들이 감탄하지 않는가?

J. 오스왈드 샌더스 「평신도 사역자의 성장을 위한 20가지 영적원리」 중에서
출처: 햇볕같은이야기

SKIN ECOLOGY ESSENCE & CREAM

피부 생태학자가 선물하는 진정한 피부 휴식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

SCI E급 논문 등재
큰열매 모자반
성분 함유

10가지 천연성분
레시피 함유

피부 무 자극
테스트 완료

4,240번의
실험과 연구

검색창에 "라파로페"를 검색해보세요.

QR코드 찍고
구매하러 가기

은혜의샘물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 (2)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현재의 모습 그대로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대로, 머리가 나쁘면 나쁜 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대로, 머리가 좋으면 좋은 대로, 잘생겼으면 잘생긴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찬송가 349장, [나 주의 도읍 받고자]는 가난으로 인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던 한 소녀가 하나님 앞에 바친 애절한 기도, “오 주님 부족한 이대로 날 받으옵소서”를 기초로 해서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소녀와 같은 신앙자세가 바로 하나님께 축복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나 주의 도읍 받고자 주 예수님께 뵙니다. . . .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셋째, 하나님은 빈 그릇에 깊은 관심을 보이십니다. 선지 생도의 부인의 방안에

는 많은 빈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는 갈릴리 가나의 잔치집에 참석해서 바에 있는 돌 항아리 여섯 개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의 빈 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갈릴리 빈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허기진 빈 배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는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정신적으로 매달려 있는 민중의 아픔과 슬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보실 때에, 병 고침, 위로, 사랑, 빵 등으로 채워져야 할 빈 그릇들이었습니다. 예수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어떻게합니까? 저이 천년 전 빈들을 해했던 민중들처럼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채워 받아야 할 빈 그릇들은 아닙니까? 선지 생도 부인의 골방에 채워진 빈 그릇들처럼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가득 채워 받아야 할 사람들은 아닙니까?

빈 그릇은 가볍습니다. 빈 그릇은 속이

비어 있습니다. 빈 그릇은 소리가 요란합니다. 빈 그릇은 가난한 이들의 그릇입니다. 빈 그릇은 병든 이들의 그릇입니다. 그러나 빈 그릇은 깨끗합니다. 빈 그릇은 겸손합니다. 빈 그릇에는 애절함이 있습니다. 빈 그릇에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빈 그릇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째, 선지 생도의 부인의 순종의 믿음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 내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엘리사가 사귀는 대로 했을 때에 골방에 채워진 빈 그릇들은 기름으로 가득 가득 채워졌습니다. 예수는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산에게 명령하여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한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 한 가지는 선지 생도의 부인이 가진 것은 비록 기름 한 병뿐이었지만, 그것을 빈 그릇에 나누어 줄 때에 많은 빈 그릇들을 채울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많

은 빈 그릇에 기름을 붓는 일은 여인이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지만, 한 병의 기름으로 많은 빈 그릇들을 채우신 분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인이 행한 일은 믿음으로 빈 그릇을 모으는 일이었지만, 많은 빈 그릇들을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선지 생도 부인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마을에 나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그릇들을 빌려다가 방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빈 그릇에다 기름을 부어 가득 채웠습니다. 그 때에 그녀는 필요한 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이 행한 일은 빈 그릇을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들에게 자신이 가진 열매되지 아니한 기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때에 그녀의 가진 기름이 소모되어 없어지기 보다는 오히려 더욱 풍성히 넘쳐났다는 점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흠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돈이든지, 사



선지 생도의 부인은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나님의 종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지 생도의 부인이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은 하나님의 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술사의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하나님에게서 찾았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열쇠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대형 김현승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전체’, ‘더욱 값진 것’이 비록 ‘눈물’이라 할지라도, 이 ‘눈물’은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으로 성장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제공

향유옥합

영광은 고난을 통하여

일생 잘살기는 했는데
영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풍요로울 뿐 고난 없이
홀로 평안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헌신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중에 낙락장송이 있습니다.
크고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었습니다.
그리고 썩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산 이는
잘 살았지만 영광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니다.

그러나 크고 훌륭하게 자란 후
그 나무가 성전의 기둥이 되고
학교 건물의 대들보가 되고
성문의 버팀목이 된다면
그것이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됩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을 고난이 올 때에
기뻐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기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신앙과 가정

기도는 값진 보석

당신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까닭은
그분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천국에서 중요합니다.

그분은 당신을 아주
진지하게 대하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서면
수행원들은 당신의 목소리를
들으려 고개를 돌린다.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말을 더듬거나 두서가 없어도,
누구도 당신이 할 말에
마음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마음을 주신다.

그리고 들으신다..
집중하여 들으신다.
귀기울여 들으신다.
기도는 값진 보석처럼
소중히 취급된다.

기도의 말은 정화되고
능력을 입어 우리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라간다.

당신의 말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세상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기도의
신비를 이해하지 못할지 모른다.

그래도 괜찮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다.
하늘의 행동은
누군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시작된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주와 같이 걷는 것/맥스루카도 지음/문
종석 옮김,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 제공

또는 보청기를 처음, 다시 하려면...!

- 매우 중요한 사실 -

일반적으로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로서 소리를 크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인성(노화성), 신경성 난청**은 다릅니다. 소리만 크게 해주면 청각 인식범위가 좁아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웅웅거립니다. 이는 청각 신경세포가 퇴화되어 **보충현상(Recruitment)**이라는 특이한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청기에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보청기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소리를 크게 하되, **말소리(어음)와 여러가지 소리를 잘 인식·식별**하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적 기능이 없으면 소리는 크게 들리지만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한 것이 **‘맥소’ 보청기의 기술·기능입니다. 대한보청기는 ‘맥소’ 보청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난청과 보청기는 소리의 인식과 식별의 기술이 핵심이므로 대한보청기는 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잘 들을 수 있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가격부담이 적어야’** 하므로 맥소는 경제적인 가격으로 보급되고 있습니다.

맥소‘프로’ 맥소‘스텝’ 맥소‘크리스프’ 맥소‘스코프’ 등은 그러한 상위기능의 제품군으로 소개됩니다. **대한보청기의 본사 직영센터**는 보청기의 상위핵심 기술로서 소리의 식별·인식의 기술 및 기능을 매우 중시하며, 누구나 잘 들을 수 있도록 맥소를 시험권장해 드리므로 안심하고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RIE(8-16채널) 고급제품 大할인 특별행사!! 보조금으로 고급제품 구입!!(청각장애등급2-6급 소지자)

◆장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영등포본점 02)2637-28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북구(칠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창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

귀여움

보청기
처음 하려면...!

책자 무료 발송
보청기의 종류, 가격, 시험테스트
상담, 검사, 구입, 무이자할부 등 안내

〈전국 대리점(취급점) 모집〉

388일 전국, 천사 무료 방문 서비스!

언제 어디서나 지금 상담중...!

1544-9040

각 파트별 좋은 소리



지휘자 김영희

가. 소프라노

소프라노는 합창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곳이 얼굴이다. 합창에서 소프라노가 가장 잘 들리는 소리이다. 소프라노의 인원이 많아서 혹은 소프라노 소리가 커서 잘 들리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소프라노는 최고음 성부이다. 만일 우리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소리를 정확하게 25%씩 섞어서 노래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소프라노이다. 그 이유는 소프라노가 가장 높은 성부이기 때문이다. 높은 소리는 크게 들리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소프라노는 일부러 소리를 크게 낼 필요가 없다. 합창에서 소프라노 소리는 큰소리가 아닌 제1 소프라노의 서정적인 소리가 요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면 서정적인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힘이 들어가지 않고, 포인트가 높은 소리이다. 그리고 레가토를 잘 하는 소리이다.

서정적인 소리를 위해서는 먼저 소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relax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들 가운데는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다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소리가 부자연스러워진다. 소리는 내면서 푸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목 안쪽을 좀 더 열어야 하고 더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리의 포인트를 높여야 한다. 이것은 피치(pitch)를 높이라는 말과 같다. 소리의 포인트가 이마 혹은 더 높은 곳에 있어야 서정적인 소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레가토가 잘 되어야 한다. 음표들을 연결해서 노래하라는 것이다. 자연스

러운 레가토가 이루어질 때 소프라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성인 소프라노는 될 수 있는 대로 대학교 1학년 정도의 신선한 소리를 내려고 노력해야하며 비브라토를 최소화해서 노래해야 한다. 다른 파트에 나타나는 비브라토보다 소프라노에 나타나는 비브라토가 훨씬 잘 들리기 때문이다. 비브라토가 전혀 없어 도 무미건조한 노래가 되기 쉽다. 약간의 비브라토는 노래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데, 특히 소프라노만 나오는 곳이 있다면 분명 그곳은 멜로디를 강조하는 곳이다. 이런 부분은 비브라토가 다소 있어야 감동이 있다. 네 파트가 동시에 나오는 부분에서는 비브라토보다는 하모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나. 알토

알토는 합창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없으면 안 되는 파트, 사람으로 말하면 가슴에 해당하는 파트가 바로 알토이다. 그러기에 일부 지휘자들에게는 소홀한 파트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알토는 합창에 있어 소리를 섞어주는 역할이다. 다시 말해 소프라노와 테너 사이를 노래하며 내성을 든든히 하는 것이 알토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 변화화음이나 불협화음 등 화음의 변화에 민감해서 알토가 정확히 소리 내야 다양한 하모니를 맞볼 수 있다.

소리를 내는 방법도 알토는 변성되는 곳(break)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낮은 소리도 두성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생소리를 최대한 억제하고 두성 공명이 된 소리를 일관되게 내야 한다는 것이다. 연세가 많은 알토 단원들 가운데 말하는 식으로 노래하며, 처음에서 생소리를 내는 분들이 간혹 있다. 이것

은 일부 팝송에는 어울릴지 모르나 합창에서는 좋지 않은 버릇이다. 여성은 나이가 들수록 비브라토를 줄이고 저음은 생소리가 되지 않게 노력하라. 그리고 공기를 조금 섞어서 노래하면 그 소리는 하모니를 만드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그래야 강하지 않고 잘 섞이는 소리가 될 것이다. 공기를 섞는다는 것은 비브라토를 없애는 데도 꼭 필요한 방법이다.

알토 파트에 멜로디가 나오면 당연히 소리를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레가토로 노래하고, 소프라노와 유니즌을 하는 경우 소프라노의 발성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피치의 포인트를 높여야 한다. 그리고 두성으로 나는 윗소리를 끌어내리는 발성 연습을 권장한다. 불협화음을 내는 음들도 알토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음들은 불협화 되는 곳에서 크레센도시켜주고 협화음으로 해결되는 부분에서 디마누엔도시켜 주어야 한다. 이런 곳에서 알토 파트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 알토가 음악적으로 노래할 때 음악이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것이다.

다. 테너

테너 파트는 합창에서 소리를 섞어주는 내성을 담당한다. 사람으로 보면 팔에 해당한다고 할 정도로 화려한 면도 가지고 있다. 오페라에서 보면 가장 멋진 파트가 테너인데, 대부분 주인공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합창에서는 경우에 따라 독이 된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소리를 뽐내고 크게, 혹은 생소리로 고음을 낼 때 합창은 망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합창단에서는 일반적으로 테너 파트에 가장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소리를 가법게 내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래턱을 들거나 내밀고 노래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바

른 호흡 위에 턱은 아래로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야 좋은 테너의 소리가 생성된다. 서구 합창단의 경우를 보면 테너 파트가 아주 가벼운 소리를 내는데, 이것이 그들 합창의 하모니가 우리보다 좋은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가벼운 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첫째는 팔세토(falsetto)를 할 줄 알아야 한다. 팔세토 창법은 말 그대로 가성대 즉, 성대의 가장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을 센 가성(extended head voice)이라고도 하는데, 센 가성은 일단 가성대를 사용하여 소리를 내기 때문에 진성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호흡이 실리는 경우 어느 정도 소리를 크게 할 수 있다. 합창에서는 이 소리를 많이 개발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제1테너의 서정적이고 높은 피치의 소리가 요구된다. 이 소리는 가성이 아닌 진성인데 젊고 맑은 소리이다. 이 소리를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합창에 좋은 소리를 내는 분들이다.

영국의 합창단들에서는 알토 파트를 나자 성인이 가성으로 노래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정확한 팔세토의 소리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남자 대중가수 중 조용필은 팔세토 창법을 자유롭게 구사한 가수이다. 성악곡에 있어서는 칼 오르프(Karl Orff, 1895-1982)의 위대한 합창작품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 중 한 곡의 테너 아리아에서 가성을 불러야 하는 곳이 있는데, 성악가가 낼 수 있는 가성의 부분으로 매우 유명하다. 가성대를 이용해 매력적인 소리와 함께 하모니를 잘 만들어 주고, 소리를 질러야 하는 부분에서는 테너 파트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줄 때 그 합창이 아름답기도 하고 드라마틱해 지기도 한다.

테너 파트에서도 알토와 마찬가지로 불협화음을 만들어 주는 곳이 여러 군데 보인다. 불협화음이 되는 부분은 자칫 작게 노래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작곡자가 작게 노래해서 안 들리게 하려면 왜 불협화음을 썼겠는가? 항상 불협화음이 되는 곳에서는 크레센도를 하고 뒤따르는 협화음에서는 디마누엔도 할 줄 알아야 한다.

라. 베이스

베이스 파트는 합창을 지지해주는 받침목 사람으로 말하면 다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베이스는 흉성을 잘 내야 그 소리의 폭이 넓어지고, 소프라노, 알토, 테너의 소리를 감싸 줄 수 있는데, 흉성도 두성을 동반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다시 말해 무조건 가슴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두성의 울림이 자연스레 흉성의 울림으로 가는 것을 말한다. 이 소리는 부드럽고 서정성을 갖는데 지휘자는 이 소리를 추구해야 한다. 농촌에 가면 송아지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소가 우는 ‘음메~’ 소리를 상상해보라. 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흉성과 두성이 같이 나오며 소리가 멀리까지 전달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목을 누르며 베이스 소리를 내는 것은 좋지 않다.

피아노로 찬송가의 4성부를 치거나 들어보라. 소프라노 소리가 가장 잘 들릴 것이다. 그 다음에 잘 들리는 파트를 찾아보라. 그것은 다름 아닌 베이스 파트이

다. 베이스 파트는 4성부 중 외성으로 나머지 세 파트의 소리를 감싸고 띄워주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의 합창단들이 이런 베이스의 풀리고 감싸주는 소리를 잘 내는 것을 종종 보아왔다. 목을 눌러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풀어서 푸근하게 소리를 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라.

베이스도 저음을 낼 때는 좀 크게 노래해도 좋지만, 높은 도(C4) 이상의 고음을 낼 때는 하모니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하며, 팔세토를 이용 할 줄 알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윗소리는 크지 않게 하고 아랫소리로 내려오면서 크레센도 시킨다는 것이 합창의 기본 원칙이다. 물론 크게 노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노래의 클라이맥스나 크게 끝나는 합창곡의 마지막 부분은 소리를 다(full) 내줘야 멋진 합창이 된다.

테너와 베이스 파트는 4성부 합창을 할 때 다소 리듬감이 부족하고 템포가 느려지는 경우가 많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소 리듬감이 부족하고 템포가 느려져서 합창이 지저분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을 것이다. 이럴 때는 남성들이 항상 지휘자를 보면서 노래하는 습관을 길러야 하고, 노래할 때 리듬감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한다. 합창은 남성의 좋은 소리가 있어야 그 폭이 넓어지고 웅장한 느낌을 줄 수 있다. 테너, 베이스가 어떻게 하느냐가 합창의 열쇠이다.

출처 : 박신하 ‘합창테크닉’

◆지휘자 김영희

서울장신대학교 교회음악과 피아노전공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 코치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연세대학교 음악학과 박사과정으로 합창지휘전공 하였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수원대, 서울장신대에 출강하였으며, 경희대 강사, 대전 시립 청소년 합창단 트레이너를 역임하였다. 현재, 분당크로스 남성합창단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마침내 최후 찬양하는 자들에 있는 것



이선종 지휘자

하나님의 지식이란 인간이 하는 1차적 질료나 재료에 대한 단순한 정보와 같지 않고 통합된 행동과 의식이 함께 드러나고 있는 생명활동의 통섭 지식임을 알려준다(시139:13-14).

모든 지식 중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생명 활동인 인간과의 소통은 차원과 통로와 기운과 능력과 진정한 일치를 영적인

발화적 상태에서만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다(렘1:17-18).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시 다라고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하고 읊조리고 노래할 때(욥33:4) 인간은 자신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숨결이 살아 움직이는 몸의 작용에 대해 민감하게 일치되어 어떻게 동요(動搖)하고 있는지 그 자신의 작용 반사 행동에 주체자로 참여해야 한다(렘5:18-19). 이러한 몸의 민감한 동요를 일으키려면 하나님을 향한 오랜 양망의 고통스런 반복된 치명적 시간과 기다

림을 요구한다(시130:5-6). 수없이 반복하고 영적 감화 속도가 추진될 그 때 치명적 감각의 통증을 일으키는 감수성과 동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시42:1-2). 하지만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발이란 심지어 이런 치명적 감각과 열기에도 불구하고 여러 욕구에 매우 유동적이어서 그 주변 환경에 무엇이 반복되는지에 따라 요동치고 익숙해지고 얼마지나지 않아서 그 욕구도 점차 사라지면 처음 살렘이나 감각의 요동도 없고 화석화되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는 막대기가 되버린다. 이것이 인간이다. (렘17:9) (롬7:18-19)

하지만 하나님은 불의에 통증을 느끼는 의로움이 있는 자에게 이 감수성을 희석시키지 않으신다(시34:18). 하나님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산 것의 화열을 내시고 그 힘을 함께 내자고 하신다(시16:11). 함께 즐거워하고 공감하려 하신다(요15:11). 이 지식은 항상성이라는 몸 감수성이 역동하는 현시적 행동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지식은 정해진 선언문을 읽고 이해하

고 음미하고 지식에 대해 설명해 주는 남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이 설명과 경험 증거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전하신 하나님의 영을 당사자의 몸이 체현하

는 현재로 가져와 교감하고 같은 통로에서 그 영과 함께 걷고 뛰며(빌2:13) 찬양 hymn 영광의 도가니에 사는 것이다(고후 3:18).

◆이선종 목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BA) /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 Master Christian Music(MCM) / Korea Presbyterian College of America(MDiv)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America(Thm) 수료 / Cantor, Music Pastor / 카리타스합창단 음악감독/VKCC 지휘자/성서 번역가

종이를 펼치면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온라인 매체 때문에 신문이나 책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신문과 책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펼칠 때마다 생생히 보이는 아름다운 세상의 소식과 지식이

펼쳐지는 신문과 책 - 그 종이를 대한제지가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제지를 펼쳐보세요, 아름다운 세상이 보입니다!



히즈쇼, 200개 교회에 ‘사랑하기 캠페인’ 실천키트 무료 배포

캠페인북 2,000부 및
스티커 2,000세트 지원

기독교 교육 콘텐츠 기업인 ‘히즈쇼 (HisShow)’가 진행한 ‘사랑하기 캠페인 100교회 이벤트에 전국 250개 교회가 신청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히즈쇼는 “당초 100개 교회 선정을 목표로 기획된 이번 캠페인은 예상보다 큰 관심에 힘입어 최종적으로 200개 교회를 선정해 지원을 확대했고, 총 2,000개의 ‘사랑하기 캠페인북’과 스티커 세트를 각 교회에 무료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사랑하기 캠페인’은 히즈쇼가 기획한 실천형 교육 콘텐츠로, 예수님의 말씀인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제 삶에서 훈련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7일 동안 인사하기, 칭찬하기, 용서하기, 사랑하기라는 네 가지 주제를 따라 진행되며, 각 활동은 말씀 묵상, 마음 나누기, 테스트,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된 캠페인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참여자는 매일 사람의 실천 항목을 따라가며 행동과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히즈쇼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단순한 콘텐츠 제공을 넘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훈련’을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캠페인을 구성했다.



캠페인북(왼쪽)과 스티커 세트 ©히즈쇼

캠페인북은 어린이부터 청소년, 청년, 교사, 학부모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쉽게 구성되었으며, 여름성경학교 전후, 또는 가정과 공동체 모임에서 복습용 또는 사후 실천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선정된 여러 교회에서는 “단기간에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했는데, 캠페인북이 딱 맞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특히 ‘칭찬하기나 ‘용서하기’ 같은 실천은 일상적인 언어와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되어, 가정과 교회 공동체 내 관계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캠페인 이벤트에 당첨된 200개 교회에는 캠페인북 10부와 스티커 10세트가 각각 발송됐으며, SNS 인증을 통

해 캠페인 후기와 실천 과정을 공유한 교회 중 우수 참여 교회 5곳에는 별도의 선물이 제공될 예정이다.

히즈쇼 관계자는 “사랑은 단지 배우는 개념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곳곳의 교회에서 따뜻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캠페인 참여 교회 외에도 여름성경학교 시즌을 앞두고 더 많은 교회들이 이 프로젝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과 안내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랑하기 캠페인’은 히즈쇼가 준비한 2025년 여름성경학교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히즈쇼 여름성경학교는 ‘사랑하기 프로젝트-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는 예배, 공과, 어드벤



히즈쇼 2025 여름성경학교 포스터 ©히즈쇼

처 챌린지, 캠페인북을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한 ‘울인원’ 여름성경학교 프로그램이다.

특히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 매뉴얼, 설교 및 공과 PPT, 교사 교육 자료까지 제공되며, 처음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고 한다.

히즈쇼는 “이번 여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누는 복된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며 “모든 아이들이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과 의미를 배우고, 가정과 교회, 사회에 따뜻한 변화를 전할 수 있도록 기획된 이번 여름성경학교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재에서 피어난 희망”... 산불 피해 현장 담은 사진전, 대전에서 열려

경북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신앙 공동체들의 아픔과 그 속에서 움튼 회복의 희망을 담아낸 특별한 사진전이 대전에서 열린다.

대전 함께하는교회(담임 김기중 목사)는 오는 5월 18일부터 30일까지, 교회 지하 2층 로비 공간에서 ‘재, 다시 세운다’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전시는 김기중 목사가 지난달 직접 산불 피해 지역을 찾아가 촬영한 사진들로 구성됐다. 그는 불길에 휩쓸고 간 현장을 발로 누비며 무너진 신앙 공동체의 모습과 그 안에 여전히 살아 있는 믿음과 회복의 움직임을 렌즈에 담았다.

불에 타 사라진 빛과소금교회의 부엌, 지붕이 붕괴된 매정교회, 잿더미 속에 선 석봉교회는 그 자체로 상처 입은 이웃들의 삶과 신앙을 말없이 전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 모습들은 단절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앙의 잔해이기도 하다.

전시는 다섯 개의 주제로 나뉜다. 1부는 산불 피해의 전반적인 양상을 조명하고, 2부는 생태계와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서 무너진 현실을 보여준다. 3부는 신앙의 상징이었던 교회 건물들의 소실을 기록하며, 4부에서는 피해를 입은 교회 공



동체와 성도들의 목소리를 담는다. 마지막 5부는 사진을 찍은 김기중 목사의 해설 글을 함께 실어, 관람객에게 사진 너머의 메시지를 전한다.

교회 측은 전시 기간 동안 피해 교회를 위한 자물 보급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사진은 재의 흔적을 기록하지만, 동시에 그 재를 딛고 일어서는 희망도 담습니다.” 김기중 목사의 이 말처럼, 이번 전시가 고통의 기록을 넘어 연대와 회복을 향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노형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오전	5:00	00 TV새벽예배 40 하나님의 시선	50 조건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1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153회) 30 TV강단 삼일 (송태근)	00 만나 위심 김병삼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이경은 목사(진주초대교회) 30 생명의 말씀-황용식 목사(신애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비전설교 사메틀형제교회 권준 목사	10 [말씀] 김형준 목사(동안교회) 50 2024 하용조 목사의 세븐블레스	00 생명의 양식 대한 (윤영민) 30 축복의 말씀 (차영아)(333회)	00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노변담화 (831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10회)
	7:00	00 CTS 뉴스 W 20 생명의 말씀-박성순 목사(대구동부교회) 50 생명의 말씀-김형식 목사(필그림교회)	20 말씀의 샘터 춘천사랑의교회 윤대영 목사 50 말씀의 샘터 소명중앙교회 김대상 목사	30 휴먼네트	20 주만찬 (73회) 40 오늘 만나는 큐티 (113회)	00 포항중앙교회 주일예배말씀 송영렬 목사
	8:00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30 Miracle Moment	2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30 휴먼다큐멘터리 사람은 강물처럼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최병락 목사(강남중앙침례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1567회)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4281회) 스기라 4강	00 고평역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목 (70회) 성경 속 직업의 세계 30 비전메시지 새빛교회 김윤일 목사
	9:00	00 CTS 특별 생방송	00 말씀의 샘터 에버그린교회 김학필 목사 30 말씀의 샘터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	00 [말씀] 반태효 목사(방주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10 새롭게하소서 (11286회) 자이언제이 작가	00 성지가 좋다 (483회)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8 3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4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135회)
	10:00	00 CTS 특별 생방송	00 사론의 꽃 필 때	2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00 파워인터뷰 (189회) 20 하나님을 기쁘시게 7004 (84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김하나 목사
	11:00	00 CTS 특별 생방송	00 비전설교 가나안교회 장경덕 목사 30 비전설교 베이직교회 조경민 목사	10 [말씀] 황성은 목사(창동명광교회) 50 영적성장의 도구 애니어그림	20 세상을 보는 창 (258회) 50 만나다 (2회)	00 성지가 좋다 국내편 (16회) 전라남도 순천 3부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85회) 50 성찬의 소리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오후	12:00	00 CTS 뉴스 W 20 신앙예세이 30 수영로의 시간-이규현 목사	00 말씀의 샘터 백송교회 이순희 목사 30 말씀의 샘터 하늘교회 신동대 목사	1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20 [말씀] 이간호 목사(순복음대구교회)	00 TV강단 진주초대 (이경은) 30 TV강단 인천제일 (이재일)	20 성경 속 전쟁사 (3회) 출애굽, 신들의 전쟁 50 복음강단 부민교회 박현명 목사
	13:00	20 오정현 목사의 비전목상 3분 미라클 3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00 말씀의 샘터 임마누엘교회 전담양 목사 30 우리들의 자식살롱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율포일 (632회)	30 고평역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 차목 (70회) 성경 속 직업의 세계
	14:00	00 CTS 특별방송	00 2025 청년 다니엘기도회	0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20 [말씀]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00 말씀의 힘 창일 (이사무엘) 30 CBS 아카데미 숲 (116회)	00 믿음의 리액션 (21회) 전라도 군산시 40 성경 속 전쟁사 - 에피소드
	15:00	00 CTS 특별방송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리다굼	00 [말씀] 류용렬 목사(와성튼중앙장로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김홍규)(4280회) 옴기 3강	00 사랑하고, 그리고, 보고 싶은 어머니 (8회) 김의신 박사
	16:00	00 CTS 특별방송	00 오호수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30 말씀의 샘터 순복음참아름다운교회 안병찬 목사	00 하용조 목사의 창세기 강해 4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5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10 21일간의 열방과 함께하는 2024 다니엘 기도회 (3회) 50 만나는 교회 (17회)	00 내 삶의 행복 (156회)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17:00	00 생명의 말씀-장경덕 목사(분당가나안교회) 50 신앙예세이	00 조경민 목사의 일답답 10 말씀의 샘터 전주남성교회 안효관 목사 40 말씀의 샘터 영광의교회 조이엘 목사	30 2025 복음과도시 목회자 콘퍼런스	50 영혼의 양식_산위의마를 (김영준)	00 강연소 통 (10회) 내 가족을 살리는 로고테라피 50 비전메시지 수원은혜교회 황유석 목사
	18:00	00 CTS 특별방송	10 세계테마기행 40 더 깊은 믿음 헤세드 워십	10 레디온 50 CGNTV 맞춤특강 <나침반> 시즌2	00 TV강단 당진동일 (이수훈) 30 TV강단 김포홍은나무 (이성현)	30 복음강단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
저녁	19:00	00 CTS 특별방송	00 말씀의 샘터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3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2	00 TV강단 거룩한빛광성 (곽승현) 30 TV강단 동수 (주학선)	00 비전메시지 전주산돌교회 김진영 목사 30 복음강단 청주서남교회 장승권 목사
	20:00	00 CTS 특별방송	00 더 메시지 10 비전설교 혜성교회 정영호 목사 40 힐링스토리 50 윤호균 목사의 말씀강해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크리스천 슈퍼맘	00 TV강단 순복음원당 (고경환) 50 크리스천칼럼_중앙성경 (한기채)	00 비전메시지 강남비전교회 한재욱 목사 40 비전메시지 The Life 지구촌교회 김민원 목사
	21:00	00 조셉 프린스 목사의 뉴크리에이션 30 말씀노트 말씀한창 50 CTS 뉴스	40 GOODTV 뉴스	00 소망교회 주일예배 50 CGN라이브워십 <다와서 찬양해>-온누리교회 SNS청년부-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4281회) 스기라 4강 50 잘 믿고 잘 사는 법 (11회)	10 CBN 크리스천 월드뉴스 (135회)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 (45회)
	22:00	20 [드라마] 더 초존	00 이단사이렌	10 CGN과 함께 일-일 통독 30 믿음의 씨앗 교향교회와 함께	00 CBS NEWS 10 20 새롭게하소서 (11286회) 자이언제이 작가	00 예루살렘 테이트리언 (476회) 20 소문난 성경교실 (475회) 주윤석 목사 첫 번째 5강 응답받는 기도의 매뉴얼 : 회개기도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8회)
	23:00	20 위대한 발걸음 30 사랑과 구원의 발자취	00 2025 미주 디아스포라 다니엘기도회	10 쟈센 프랭클린의 부흥 4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신약>	10 더 콜링 (145회) 30 목사님 궁금해요 (104회) 5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1567회)	00 장종현 목사의 비전메시지 (2회) 40 리버리즈 워십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24:00	00 TV찬양예배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김윤희 박사의 성경 에센스 10 이석 목사의 믿음으로 사는 삶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유은정 원장의 마음치로 코칭3	1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3회) 50 성경꿀팁 이것이 궁금하다 (49회)	00 새에덴 강단 소강석 목사
	1:00	00 CTS 두란노 성경교실 - 김진홍 목사 50 [워킹모더바이블]성경의 땅	10 신사랑 프로의 원포인트 골프레스 2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종현 총장	00 [말씀] 백금산 목사(예수가족교회) 4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믿음의 대화 365 (39회) 40 임석순 목사의 주일 강단 (475회)	00 THE 깊이 궁금한 신앙, 몰랐던 이야기 (20회)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2:00	10 내가 매일 기쁘게	10 매일 주와 함께	20 [말씀] 김형익 목사(백산로교회)	30 TV강단 대연성결 (임석웅)	00 만나 U (20회)
	3:00	00 오늘의 정원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GOODTV 특별간중	00 [Global Sermon] Jentezen Franklin's Revival 3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00 맞나는 교회 (17회)	00 오직주님 명성의 위임 김하나 목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20 오늘의 양식 30 내 영혼의 찬양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인천제2교회 이경연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마크 최 목사(뉴저지온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인)(3246회) 출애굽기 8강 50 CBS 교회소식 (999회)	0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15회) 새에덴교회 소강석 목사 40 김병삼 목사의 365 매일만나 (주님은 나의 최고봉) (147회)

EMPOWER EVERY POSSIBILITY

세상의 모든 가능성, 에너지로부터

